

**김정일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김정일시대 군부의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연구실

연구관 송경호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기존 연구 검토	5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2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 관계와 군의 역할	14
제1절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	14
1. 당·군 관계 이론	14
2. 구소련의 당·군 관계	22
3. 중국의 당·군 관계	25
제2절 북한의 당·군 관계 특징	28
1. 전통적 당·군 관계	28
2. 수령 중심적 당·군 관계	33
제3장 북한군의 정치조직 기능과 군부의 위상	39
제1절 북한군의 정치조직과 기능	39
1. 정치계통	40
2. 군사계통	46
3. 보위계통	48
제2절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 군부의 위상	51

1. 군의 정치적 역할	51
2. 군부의 위상	54
제4장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 및 군사중시정책	58
제1절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	58
1.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	58
2. 김정일의 군부인맥	69
제2절 김정일의 군사중시정책	76
1. 붉은기사상과 강성대국론	76
2. 선군정치	79
3. 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력 증강정책	84
제5장 북한 군부의 역할변화 전망	87
제1절 북한군의 역할변화 실상	87
제2절 군부의 역할변화 전망	90
제6장 결 론	93
참고문헌	102

표 목 차

<표 3-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도	49
<표 3-2> 군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53
<표 3-3>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시 국방위원회 위원 현황	55
<표 3-4> 북한의 주요행사에서 나타난 군부인사의 서열변화	56
<표 4-1> 북한 군부의 주석단 서열변화	62
<표 4-2> 북한군 장성 정기진급 현황(1992-2003년)	65
<표 4-3> 김정일 공식행사 수행횟수로 본 순위(1998-1999년)	67
<표 4-4> 북한군 주요인사 프로필	71
<표 4-5> 선군정치의 개념 정립화 과정	80
<표 4-6>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주요 통치이데올로기 언급비중(1996~2007)	8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난 49년 동안 일인독재체제를 유지하여 왔던 김일성의 사망은 북한체제의 대내외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는 계기로 작용되었다.

그것은 대내적인 측면에서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혼란, 부정부패, 주민의 사상적 이탈현상으로 나타났다. 대외적인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권탄압 문제 등이 이슈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의 지탄과 함께 외교적 고립의 결과를 초래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무기를 빌미로 하여 북한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고 북·미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남북관계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왔다.

그러나 핵문제의 해결과 동시에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받고 경제적 지원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룩하려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은 북핵문제 해결의 진전 없이는 북·미 적대관계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는 한·미·일 3국의 강경 입장으로 지속적인 대립양상을 보여주었다.

특히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1990년대 중반부터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이 외교·경제·군사적으로 확산되면서 북·미 관계는 더욱 악화되기에 이르렀다.

당시 국내외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김정일 체제가 곧 붕괴될 것이라는 “북한체제 붕괴론” 적 시각이 대두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이들의

예상은 크게 빗나갔고 오히려 북한 체제는 정치·경제·사회·대외적 측면의 위기상황을 서서히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다. 일부에서는 “체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데 성공했다”¹⁾는 성급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위기 국면에 대처하여 한편으로는 자신의 권력기반을 강화시키기 위해 김일성 유훈통치를 내세우고 얼굴 없는 유훈통치를 선보이면서 군부중심의 충성심을 발양시켜 주민들의 이완된 사상의식을 결집시켜 나가는데 총력투쟁을 경주하여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1997년 당 총비서 추대와 1998년 국방위원회 위원장 재추대²⁾를 계기로 대내외적으로 정치사상적 안정을 도모하였다. 2002년 7월 1일에는 경제개혁·개방을 추진한 결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저점을 지나 점차 회복기에 접어들어 섰다.

북한 군부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는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서 군부의 선호도와 정치적 이익을 반영한 각종 정책들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입증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을 앞세워 북한체제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외협상의 중요한 소재로 군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외부와의 협상에 활용하면서 동시에 군부의 충성심을 사회전반에 일반화시켜 체제유지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군부의 위상 변화는 당 서열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것은 김일성 생존 당시의 당 서열이 김일성-김정일 부자 외에 정치국 상무위원-정치위원(정무원 총리-국가부주석-외교부장-총참모장-당 비서-기타)-정치국 후보위원-조선인민군 차수-부총리 순으로 나타났지만 김정일

1)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4권 1·2호 합본(2000. 11), 223면.

2)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재추대하는 연설에서 “국방위원장이 정치·경제·군사전반을 장악하는 국가 최고 직책”임을 선언하였다.

사망 이후 헌법 개정과 권력구조 개편을 통해 두드러진 변화를 보였다.”³⁾

김정일은 최고인민회의 제10기 1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주석제를 폐지시키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부활시켰다.

사회주의 개정헌법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가를 대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스스로 “국가의 최고직책”은 “국방위원장”이라고 호칭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는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였다.

북한은 기존의 정무원을 내각으로 개칭하여 내각 총리가 정부를 대표하는 권력구조를 갖추었다. 따라서 형식적이거나 권력의 분권화가 이룩된 것이다. 그렇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하는 국가의 최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보다 서열상 앞자리를 차지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다.

김정일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사상과 군사를 중시하는 강성대국 건설을 제창하였다. 그는 “총대가 튼튼하지 못하면 나라의 강성을 떨칠 수 없고 자주권과 나라 자체를 지켜낼 수 없다”⁴⁾는 입장을 천명하면서 1998년 1월 18일 주체의 강성대국론을 제시하여 강성대국건설이라는 새로운 국가적 통치구호를 내세우고 선군정치, 군사중시정책을 최우선적 과제로 추구하여 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선군정치는 군으로 하여금 전쟁의 수단이나 국가방위를 위한 수단으로 뿐만 아니라 혁명과 건설의 역할도 수행해 나가는데

3)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275면.

4) 「로동신문」, 1998. 9. 6.

그 본질이 있다”⁵⁾고 강조한다.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000년을 강성대국 건설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난 역사적인 해로, 제국주의자들과의 정치적 대결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힘의 정책에는 강경하게, 유화전략에는 혁명적 원칙성으로 대응하여 우리식 사회주의를 수호했다”고 평가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추구하고 있는 군부 우대정책으로 군부의 핵심인사들의 권력서열은 5~7위까지 격상되었고 이중 조명록 차수의 경우 김정일, 김영남에 이어 서열 3위를 차지하였다.

북한의 군사 중시 정책들은 북한 사회가 한국 사회와는 달리 군과 비군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군이 전반적인 영역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뢰를 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도 과거에 비해 훨씬 증대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남북 분단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더불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공존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김정일시대 당에 의존하는 것보다 군을 중시하면서 군사통치 일변도로 체제를 유지하고 권력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당·국가체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으며, 당·군 관계의 실질적 지위와 위상이 크게 변화되었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이 당의 권위를 추월하여 당의 권한이 약화되었다고 강

5) 이교덕,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배경과 그 대내외적 영향”, 『정신전력학술논집』 제3집(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114면.

조하고 있는 일부의 주장들은 북한의 군부 영향력 강화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거시적 수준에서 지속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여전히 북한의 당·군 관계는 군대 내의 당 및 정치기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군 관계에서 당 우위라는 기존 입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군의 정치적 위상과 군내 정치조직체계 및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장악실태, 군중시정책 등을 기초로 군부의 역할변화와 대남 군사정책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핵심세력인 군부의 위상과 역할변화가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기존 연구 검토

북한에서 군이 차지하는 위상과 정치적 역할은 향후 북한체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북한군에 관한 연구는 비교공산주의적 차원에서 북한군의 역사적 변천과정과 군사력 실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군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에 관한 연구는 다소 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군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당·군 관계 불변

론”, “당·군 관계 변화론”, “당·군 관계 피동적형성론”으로 크게 세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어 왔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당·군 관계 불변론”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북한군의 위상과 역할이 상승된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권력구조 차원에서 볼 때 기존의 당·군 관계의 변화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이다.

대표적 연구자들은 이종석, 정영태, 이대근, 정성장, 최진욱, 최완규 등을 들 수 있다.⁶⁾

이종석은 “김정일시대의 당과 국가기구”에서 “김정일이 북한 군대를 높이 평가한 것은 다름 아닌 군대의 당 사업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지 군이 당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다고 보았다. 그리고 군 고위인사들의 당 서열이 높아진 것은 군대에 대한 당의 높은 평가를 보여주는 것일 뿐 그것을 군대의 당 접수식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군사국가화를 군이 최고지도자의 명을 받들어 사회, 경제전반에서 국가운명의 개척자로 나서는 양상이라고 분석하였다.”⁷⁾

최진욱은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에서 “군부

6) 이종석,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서울 : 세종연구소, 2002.2) :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이대근,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12) :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 붉은기 사상과 당·정·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9년 한국정치학회 추계학술회의 발표논문) : 최진욱,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1998) : 최완규,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현대북한연구』 4권 2호(2001).

7) 이종석, 앞의 책, 18~19면.

의 위상 강화에도 불구하고 군의 정치적 역할의 증대는 한계가 있으며, 기존 당·군 관계는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즉 군이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수호하는 조직이고 과도기적 역할 수행이 중요하지만 군부가 당위에 선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특성상 아직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 8)을 밝혔다.

정성장은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에서 “북한을 ‘군정체제’, ‘군 우위의 체제’, ‘군부통치국가’로 보는 시각은 북한에서 수령의 유일영도체제가 어떻게 확립되고 운영되어 왔는지 또한 당의 영도적 역할과 북한 체제의 당·국가 체제적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였다.” 9)

이대근은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에서 “북한에서 당이 정책결정 기능이 약화되고 군부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군의 제한적 범위 내에서 사회통제 기능과 경제적 기능을 확대하였을 뿐 정치적 역할까지 대신하고 있지는 못하며, 사회주의 체제의 골간인 당·군 관계의 구조적 이데올로기적 속성상 당 우위 영도원칙이 지속되는 한 당·군 관계의 틀에는 큰 변화가 없다” 10)는 입장이다.

최완규는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군중시 또는 군의 영향력 증대현상은 군·정 관계의 변화를 의

8) 최진욱, 앞의 책, 54면.

9) 정성장, “김정일 체제의 지도이념과 성격 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9집 3호(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9), 306~307면.

10) 이대근, 위의 책, 246면.

미할 수는 있어도 당·군 관계의 변화는 아니라는 견해이다. 따라서 김정일을 정점으로 한 당 중심의 군중시체제라고 분석” 하였다.

이들 연구자들은 오히려 김정일 체제의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군에 대한 당적 영도와 정치적 감시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당·군 관계 불변론”은 군의 정치적 영향력을 현실적 변화로 인정하면서도 그 본질적 변화가 불가하다는 당·국가체제 환원론에 빠져있으며, 군대 내의 당의 통제의 구조적·제도적 한계를 강조함으로써 군대의 정치적 역할의 변화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② “당·군 관계 변화론”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국가형태가 권력의 분산과 집단지도체제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상 국가권력의 최고지도자로서 군사우선주의가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군이 당으로부터 일정부분 자율성을 확보하여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 군·당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들 연구자들은 당의 정치적 역할이 약화된 반면 군의 위상이 강화되었고, 당이 군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정치권력은 당에서 군으로 대체되었다는 입장이다. 대표적 연구자들은 김용현, 이기원, 이기택, 이종국, 김성철, 오일환, 백승주, 서대숙, 고유환, 서동만 등이 있다.¹¹⁾

11)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군사화에 관한 연구”, 『2001년 신진연구자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서울 : 통일부, 2001)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발전 전략”(한국정치학회 및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 주최 학술회의, 1998.10.17) :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정치비평』 4호(1998) : 이기원, “김정일의 권력과 군부와의 관계”, 『북한학보』 20집(서울 : 북한연구소, 1996) : 이기택, “북한 군부의 특징과 권력정

오일환은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에서 “최근 군에 대한 전통적인 당적, 정치적 통제가 김정일 권력 장악과 함께 상당부분 약화되고 군부가 정치권력 실세로 등장하는 경향을 띠고 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추대 이후 북한 사회는 더욱 군사체제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¹²⁾고 밝혔다.

서대숙은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김정일의 정치체제를 군국주의국가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역 군인들의 정치개입이나 그들이 과도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정치체제가 아니고 군인들의 정치개입을 제도화시킨 군인 지상주의 정치체제로 규정했다.”¹³⁾

김성철은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전망”에서 “군부에 대한 당적 지도가 상당부분 잘못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군부의 독자성 또는 자율성이 증대되면서 당과 군부사이의 구조적 연결성이 현저하게 낮아지고 있다”고 파악하였다.

백승주는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변화”에서 “북한군내 당조직을 통하여 당의 전통적 역할을 대신하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당·정·군 관계에서 군 기관이 우월적 역할과 위상을 강조하고 있

치”, 『북한학보』 22집(서울 : 북한연구소, 1997) : 이종국, “김정일체제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현대북한체제론』(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김성철,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그 전망”, 『통일경제』 1997년 7월호 : 오일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 『현대북한체제론』(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변화”, 『국방정책연구』(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1년 12월호).

12) 오일환, 위의 책, 56~58면.

13)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 을유문화사, 2000), 223면.

다”

전술한 바와 같이 “당·군 관계 변화론” 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북한 군부가 역할 변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 주요 인사들의 공식석상 등장(군 인사의 주석단 서열 상승, 김정일의 군부대 현지도도 동행 등)이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③ “당·군 관계 피동적형성론” 적 시각의 연구자들은 북한에서 당·군 관계가 당·군의 조직간 파워게임의 문제가 아니라 김정일의 의지에 따라 김정일을 중심으로 군이 수평적으로 당·정과 같이 역할을 분담하는 위상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표적 연구자들은 김갑식, 이종석, 김용현, 이태섭, 김인규 등을 들 수 있다.¹⁴⁾

김갑식은 “북한의 당·군·정 역할분담체제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체제가 당·국가 체제에서 당·군·정 역할 분담체제로 정치체제를 전환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김용현은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군사화에 관한 연구”에서 “북한의 대외적인 위기에 대응하여 대내적 안정과 경제난 극복의 기제로 선군

14) 김갑식, “북한의 당·군·정 역할 분담체제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1) : 김인규, “북한의 당·군 관계 변천과정 분석”,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98.12) : 이종석, “김정일시대 북한의 권력구조와 당·군·정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 :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3)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5권(서울 : 통일부, 2001) :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5권(서울 : 통일부, 2001).

정치와 군사화가 호명되었다”¹⁵⁾고 설명하였다.

이태섭은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에서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선군정치가 발생하였고 김정일이 군을 기축으로 체제수호를 위한 군사적 기능뿐 아니라 체제안정과 강화를 위한 정치 사상적 기능,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 경제적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¹⁶⁾고 주장했다.

이들 연구자들은 “북한군이 기존의 당의 군대에서 수령의 군대로 전환되고 군부의 역할이 강화된 것은 군부의 권력투쟁의 산물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의 운영에 따른 강제된 파동적 현상”¹⁷⁾으로 파악하였다. 그렇지만 중국적으로는 ‘당·국가체제 환원론’으로 귀결 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 군부의 위상과 정치적 역할”에 관한 기존 연구는 당·군 관계를 연구하는데 많은 공헌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정시기 및 군부통제 제도 등의 부분에 한정하여 연구함으로써 전반적인 북한 군부의 위상과 당·군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김정일시대 북한의 당·군 관계의 특징과 역할 변화의 시각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북한 군부의 위상과 역할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15)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 군사화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5권(서울 : 통일부, 2001), 63~98면.

16)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제1-5권(서울 : 통일부, 2001), 233~290.

17) 김인규, 위의 논문, 100면.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북한의 당·정·군 요소에서 군사 분야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방법은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문헌조사법을 근간으로 한 문헌 중심적 내용분석방식을 주된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주요 자료로는 북한의 개정된 헌법, 규정, 김일성·김정일 문헌, 김정일의 최근활동, 북한연구 관련 문헌, 정부간행물, 각종 분석논문, 노동신문, 국내 신문,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다. 또한 북한을 탈출한 ‘새터민’의 증언과 북한의 주요 행사에서 나타난 군부 인물들의 서열변화를 추적하여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

제2장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 이론과 특징’에서는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와 ‘북한의 당·군 관계 특징’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자에서는 당·군 관계 이론을 개술하고 구소련과 중국의 당·군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후자에서는 북한의 전통적 당·군 관계와 수령 중심적 당·군 관계의 특징을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제3장 ‘북한군의 정치조직 기능과 군부의 위상’에서는 ‘북한군의 정치조직과 기능’ 및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 군부의 위상’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4장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 및 군사중시정책’에서는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와 ‘김정일의 군사중시정책’으로 나누어 면밀히 분석 검토하였다.

제5장 ‘북한 군부의 역할변화 전망’에서는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에서의 군의 역할 변화 실상과 김정일의 군 중시정책의 추진방향, 북한군의 향후 변화가능성을 전망하였다.

제6장 ‘결론’에서는 연구의 결과물을 토대로 김정일시대 군부의 위상과 역할변화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책을 제시하였다.

제2장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 관계와 군의 역할

제1절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 · 군 관계

1. 당 · 군 관계 이론

어떠한 정치체제를 막론하고 군은 한 국가의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군이 정치체제 내에서 추구하는 이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제 가치, 자신의 이미지 또는 직업적 신념 등 군의 명예와 관련된 이데올로기적 이익이며, 다른 하나는 폭력이라는 수단을 합법적, 조직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외침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국방의 기능에서 도출되는 기능적 이익이다. 전쟁의 위협 등 국제적 긴장이 고조되면 정책과정에서 군의 지위는 향상되어 왔다.”¹⁸⁾

자유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군은 정치적 중립을 견지하면서 문민통제가 원칙적으로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에서의 군은 고도의 정치화된 세력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수행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 관계 이론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군 관계를 어떻게 규명하고,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당·군 관계는 군이 당에 예속되어 당에 의한 군부 통제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이며, 국가체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거나 내부에서 군의 역할을 요구하는

18) 김경숙, “정치과정”, 조정남 외, 『사회주의체제비교론』(서울: 형성출판사, 1988), 170면.

경우 군의 정치 개입은 더욱 가증되어 왔다. 예를 들어 “중국의 경우에는 1963년부터 1971년까지 군부의 정치적 역할은 당 중앙위 27개 직 가운데 21개 직과 지방 당서기직 62%를 군부가 차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익을 추구하는 군은 보통 전문직업주의 성향¹⁹⁾을 지니고 있으며, 군의 직업주의는 민·군 관계 또는 당·군 관계를 형성하게 만들었다. 다시 말하여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party-military relations)는 군이 권력에 대한 잠재적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체제 유지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발생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군 관계를 체계적인 모델로 분석하려는 시도는 “1960년대에 들어서 제3세계 개발도상국가에서의 민·군 관계 개념을 정리한 헌팅턴(Samuel P. Huntington)에 의해 그 기초가 마련되었다.”²⁰⁾

헌팅턴은 당과 군부는 별도의 집단이며, 당이 다양한 수단(폭력, 숙청, 비밀경찰조직 등)을 통해 군을 당에 복종시키고 당·군 관계의 변화가 당이 발휘하는 통제의 효율성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적 장교집단의 등장이 민과 군의 두개 영역을 분화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민간에 의한 군통제 문제가 제기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에 의한 군 통제 방법을 주관적 통제와 객관적 통제로 분리하였다.

① 주관적 통제는 군의 실적에 의한 진급이나 군직업주의적 자율성을 허용하지 않고 통제장치를 통해 모든 군사문제에 개입하고 정치적 교정

19) 군의 직업주의는 통제와 기술을 속성으로 한다.

20)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t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Cambridge, Mass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p.7.

을 하려 한다고 보았다.

② 객관적 통제는 군사 고유의 문제인 국방문제는 군대에 맡기고 직업주의 등 군의 실질적 자율성도 최대한 허용되는 대신 군대 문제 이외의 사회·정치적 문제가 민간정치인의 영역임을 군대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주·객관적 통제는 “주관적 통제모델이 군대를 민간화(정치화)함으로써 군대가 국가 목표로 실현하는 모범적 조직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라면 객관적 통제모델은 군대를 중립화하여 단순히 국가의 도구로 남아있도록 하는데 있다.”²¹⁾

그 후 펄머터(Amos Perlmutter)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들의 당·군 관계를 보다 타당성 있게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²²⁾

펄머터는 당·군 관계를 군부의 속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첫째는 내부적으로는 응집된 집단의식을, 외부적으로는 군사적 전문영역에 대한 배타성을 지향하나 국가안보에 관계된 문제에는 민간정권과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는 직업적 군부, 둘째는 민간정권의 정통성과 효율성을 부인하면서 직접적으로 통치에 개입하는 집정관적 군부, 셋째는 직업적 군부에 비하여 보다 이념 중심적이고 덜 배타적이며, 혁명적 성향의 민간정권이 지닌 가치를 내면화하는 직업적·혁명적 군부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구소련의 군부를 직업적 군부로, 중국 군부를 직업적·혁명적 군부로 파악하였다.

1980년을 전후하여 헌팅턴의 개념을 수정하고 사회주의 국가의 당·군 관계를 보다 발전적이고 보편적인 대안의 연구들이 제시되어 사회주

21) Huntington, Ibid, pp. 83~84.

22) Amos Perlmutter,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을 이론화하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갈등모델(conflict model), 제도조화모델(institution congruence model), 참여모델(participatory model)을 들 수 있다.

① 갈등모델은 콜코비츠(Roman Kolkowicz)로 대표된다.

콜코비츠는 “헌팅턴의 주관적 통제모델을 기초로 흐루시초프시대 소련에서 당과 군의 상호간 다른 가치와 목적, 이익을 추구하며 대립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았다. 즉 공산당은 군을 당 헤게모니의 방어자로 인식하는 반면, 군은 독립성 또는 전문적 자율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에서 기본적으로 양자가 갈등관계에 놓이게 되며, 이 과정에서 당은 군이 통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정치적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반면, 군은 당의 통제를 약화시키면서 이익집단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지속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자간의 관계는 제로섬 관계이며 이로 인해 갈등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았다.”²³⁾

또한 “제도화되지 않은 권력승계문제가 불안정과 제도적 긴장을 촉진시킨다는 점을 지적하고, 갈등관계로 인해 공산당의 정통성이 약화될 때 당의 수호자, 사회정치구조의 통합자로서 군사적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²⁴⁾

갈등모델은 사회주의 체제가 군대의 강력한 정치적 역할로 갈등이 있음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 큰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23)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pp. 104~105.

24) Roman Kolkowicz, The Political Role of the Soviet Military (New York : Prager, 1984), p.135.

그러나 당과 군의 서로 다른 이익과 목표를 추구하는 제도적 특성을 너무 강조한점, 제도의 다양한 성격과 제도 내 여러 의견의 존재를 간과하고 제도화되지 않은 권력승계문제가 불안정과 제도적 긴장을 촉진시키고 있다는데 아쉬움을 남게 한다. 또한 당·군 엘리트의 상호불신과 갈등을 과장하고 당·군 간의 연합의 여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② 제도조화모델²⁵⁾은 갈등모델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당과 군 관계의 기초는 갈등이 아니라 조화임을 주장하고 있다.

대표적인 학자는 윌리엄 오덤(William E. Odom)이다. 그는 소련에서 군의 정치적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군대는 당의 행정적 기구일 뿐이며 당과 경쟁하거나 분리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둘째, 국내 정치에서 당과 군은 공생적 관계이다.

셋째, 군대는 최초의, 그리고 최고의 정치제도이다.

넷째, 군대내 정치활동은 관료적이며 의회주의적이거나 로비스트적이지 않다.

다섯째, 고위군사정책 결정에는 하위차원의 군사정책 결정과는 구별되는 ‘기계적 요소’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이론·교육·경제조직·지원배분 등의 문제)가 작동한다고 보았다.

오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과 군은 동일한 가치관을 공유하고 공통

25) William E. Odom, "The soviet Military : The Party Connection", Problems of Communism(September -October, 1973), pp.14~26.

의 목적을 추구하는 협력과 조화의 관계 속에서 기능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조화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구소련에 있어서 군 간부와 당 간부에게 요구되는 자질과 지도력은 비슷하고 군 엘리트는 당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집행자이며 관료적, 행정적 성격을 가진다하여 동시에 관료적 모델 접근법을 주장했다.

또한 당·군 관계를 갈등보다 안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배타적 이익 집단간의 갈등이 아니라 당내파벌 또는 상위와 하위집단의 갈등으로 보면서 당과 군에 대한 간섭 및 통제가 군의 능률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승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조화모형은 “군대가 당의 일부 부속기구로서 기능을 하므로 군대의 정치적 역할은 광범위하나 매우 낮은 것으로 보았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내적 통합, 통일성을 설명하기에는 파벌을 무시하고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는 점에서 갈등모델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²⁶⁾

③ 참여모델은 콜튼(Timothy J. Colton)으로 대표된다.

콜튼은 갈등모델과 제도조화모형을 모두 비판하면서 군대는 당의 한 부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그것은 군이 당 조직의 감시자가 아니라 오히려 군과의 밀접한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 공통된 이익을 발전시켜 왔으며, 당은 군대로 하여금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거나 내외부적인 목표를 수용함으로써 군 이익을 만족시켜 왔다는 주장이다.

26) Thane Gustafson, "Conclusion : Toward a Crisis in Civil-Military Relation From Breznev to Gorbachev",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p.335.

이와 같은 설명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아직까지 성공적인 군부쿠데타를 경험하지 못한 이유에 적절한 답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비교적 포괄적으로 당·군 관계를 이해 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에서 일어나고 있는 당·군의 긴장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갈등모델·제도조화모델·참여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권수립, 정치적 조건, 대외관계 등에 따라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3가지 모델은 모두 소련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로 남는다. 때문에 콜코비츠의 갈등모델은 소련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중국과 베트남, 쿠바 등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발전모델(developmental model)과 상황모델(contingency model)이다.

발전모델²⁷⁾은 허스프링(Dale R. Herspring)과 이반 볼지에스(Ivan Volgyes)로 대표되고 있다.

① 발전모델은 소련과 동구사회주의권 국가의 당·군 관계를 3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첫째 단계는 변혁기 단계로서 사회주의 체제가 수립되는 과정이다. 이 시기에는 군대에 대한 당의 감시와 통제가 느슨하게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둘째 단계는 공고화 단계로써 당이 군대를 정치화하고 군대에 대한 감

27) Dale R. Herspring and Ivan Volgyes, "The Military as an Agent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Armed Forces and Society*, Vol. 3, No. 2(winter, 1977), pp. 249~269.

시와 통제 기능을 강화하며 숙청이 단행된다.

셋째 단계는 체제유지 단계로서 군대가 당의 가치를 완전히 수용해 내면화함으로써 그 어떤 조건에서도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발전모델은 당·군 관계의 역동성을 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쿠바, 베트남 등의 사회주의 국가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황모델은 1980년대에 들어서 올브라이트가 기존의 연구 성과물들을 수용하면서 제시한 모델이다.

올브라이트는 “당·군 관계를 2원적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당과 군의 완전한 협력에서 완전한 갈등의 노선 상에 놓여있다는 유동적인 관점 하에 특정한 공산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를 문민의 권위와 군부의 권위 사이의 분화의 정도²⁸⁾에 따라 결정 된다고 보았다.”²⁹⁾

전술한 바와 같이 상황모델은 사회주의 군대의 정치적 역할이 다양한 변수의 조합이 가져온 결과라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각 변수간의 상대적 중요성과 상대적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일정한 유형화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8) 분화의 정도는 군의 직업화와 같은 한 변수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① 권력 집권과 정파 환경, ② 외부세력과의 관계, ③ 지도층간의 기능적 전문화 정도, ④ 주요 정치파벌간의 갈등과 투쟁 정도, ⑤ 정치의 관료화 정도, ⑥ 군사원칙의 변화, ⑦ 군의 국내질서에 대한 위협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한다.

29) David E.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 World Politics, Vol. 32. No. 4(July 1980). pp.53~76.

2. 구소련의 당 · 군 관계

구소련에서의 당 · 군 관계는 레닌 이후 70년 이상 지배세력이었던 공산당이 군을 통제하기 위한 당에 의한 군의 종속관계의 형태를 띠었다.

“소련군은 창설 초기에는 군장교의 90%가 비당원으로 짜르시절 군 장교가 주축이었기 때문에 당과의 유대가 적고 조직화는 물론 제대로 통제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새로운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러운 군 장교들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 ‘정치위원제도’이다. 당시 정치위원은 지휘관과 함께 그 부대의 공동책임자로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지휘관의 명령을 철회시키고 반란을 시도하는 지휘관을 사살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³⁰⁾

정치위원제도³¹⁾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프랑스였다. 프랑스는 혁명정권 당시 ‘인민대표위원회’에서 1793년 4월 30일 국민공회가 정치위원회를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그 결과 11개의 각급 군부대에 4명의 대표를 파견하여 혁명군에 해를 가하려는 군인들에 대한 감시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소련은 1918년 소비에트 제5차 대회에서 정치위원제도를 받아들이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그리고 정치위원에게 ① 장교들의 충성심과 정직성 감시, ② 전투부대의 높은 사기 유지, ③ 정치학습, 토론회, 강연, 연극 등 정치행사 주관, ④ 각급 부대 지휘관의 전략적 결심 보조 등의 기능과 역할을 부여했다.

30) Colton. Timothy. J.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Cambridge : Havard University, 1979), p.17.

31) Bullad Monte Ray, Party-Army-Government Interlocking Directorat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ructural Linkages Between Central Military,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 D. dissertation, 1977, pp.71.

스탈린³²⁾ 시대에 들어서 군의 성격과 역할, 활동 등 군 체제를 정비하고 군 지도자의 정치참여는 철저히 배제시켜 왔다.

후루시초프는 탈스탈린 정책³³⁾에 따라 장교집단의 지위를 제고하고 군직업주의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는자는 누구인가? 군부다. 군부는 유혹받기 쉽다. 건잡을 수 없는 백일몽과 허풍에 빠지기 쉽다. 어떤 계기가 오면 군대내 어떤 요소가 군국주의적 정책을 정부에 강요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정부는 군대의 이빨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군대가 국가지도부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위협세력이라고 간주하였다.”³⁴⁾

브레즈네프 시대의 당·군 관계는 정치적 통제 위주의 주관적 통제보다는 역할분담을 인정하는 객관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전례 없는 협력 체제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르바초프는 국방예산 감축, 군축, 페레스트로이카 지원세력 중심의 군 개편 등을 통해 군부 권한을 축소시키면서 군대에 대한 당 우위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왔다.

32) 군대의 정치적 역할 증대를 저지시켰으며 1937년~1942년 정치위원제도를 부활했다가 1942년 10월 폐지하고 군사단일제를 유지했다. 스탈린은 군대의 공식적 역할을 ① 당 정책과 지시의 집행, ② 국가와 정권의 보위 ③ 당 해계모니에 대한 내외의 도전자 진압, ④ 군대내 당 조직 수용으로 규정했다.

33) 스탈린 시대에 숙청된 군 간부들을 복귀시키고 장교집단의 지위 제고, 행정적 특권을 허용했다.

34) N. S. Khurushchev, "Khurushchev Remembers", The Last Testament(London : Strobe & Talbot, 1971), p.54.

특히 “소련의 공산당 국방위원회는 국방정책과 군사문제를 통합, 조정하고 당·군 관계를 밀착시켜 왔다.”³⁵⁾ 이 기구는 당 정치국 소속으로 소련 권력구조의 최고 위치를 차지하여 왔으며, 당 서기장이 군사정책과 결정에 관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였다.

때문에 구소련의 군부는 소련사회의 주요한 세력으로서 당의 주요 정책수단 및 무력집단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정책결정에서의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고 평가된다.

특히 군에 대한 당의 통제는 최고 집행기구인 각료회의를 통해서 실시되었으며, 군내의 당 조직은 당위원회로부터 초급당 조직에 이르기까지 당이 군에 대한 우위를 확보하고 군을 철저하게 감시·통제하여 왔다.

더구나 당의 군 통제는 총정치국과 KGB가 당중앙위원회의 직속기관으로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KGB는 소련군의 연대단위까지 파견되어 군의 정치적 신뢰도와 대 간첩, 군의 사기, 군기, 효율성, 정치장교에 대한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함으로써 군부에 대한 당의 이중적 감시체제를 구축하였다.

따라서 구소련의 군은 당의 혁명무력으로서 확고한 수직관계를 유지하고 군부가 공산당 정책과 노선의 테두리 안에서 작용하였을 뿐 당 지도층의 권위를 초월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것은 1985년 고르바초프의 급진적 개혁·개방정책과 1991년 8월 보수 강경파의 쿠데타 실패에서도 군이 체제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개방정책을 반대하는 보수파 쿠데타 시도에 일부 가담한 것 이외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에서도 입증되었다.

35) 장성빈, “북한체제 내에서의 당과 군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8면.

3. 중국의 당 · 군 관계

중국에 있어서 당 · 군 관계는 북한의 당 · 군 관계의 역사적인 측면에서나 권력구조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다.

“중국은 무장투쟁 등을 통해 당 · 군의 역할이 필수 불가결한 관계를 형성하여 왔다. 당중앙위원회의 구성원 역시 군부 출신이 대다수를 차지”³⁶⁾함으로써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군부가 가장 정치화된 집단으로 강력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³⁷⁾

중국 “인민해방군은 1927년 8월을 시초로 하여 1930년 초 4개의 군사조직이 형성되었다. 중 · 일 전쟁이 본격화되었던 1935년에는 국 · 공 합작의 ‘항일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였으며, 1947년 10월 인민해방군으로 개편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과 더불어 현대적인 군으로 탈바꿈하였다.”³⁸⁾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은 1960년대 문화혁명을 통해 공산당의 지도력 상실을 대신하여 군부의 막강한 지도력을 발휘하였으며,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 때에도 군이 개입하여 사태를 능숙하게 처리하는 등 군부의 지도력을 과시한 바 있다.”³⁹⁾

“중국은 정권수립 후 1954년까지 재건기간에 5개의 야군전이 해당 지방행정을 담당할 정도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였다.”⁴⁰⁾ ‘여산사건’⁴¹⁾때에도 팽덕회의 숙청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

36) 이대근, “조선인민군의 역할과 한계”,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26~29면.

37) 이화여대, 『북한사회의 변화와 전망』 (서울 : 한국문화연구원, 1992), 70면.

38) 군내의 당 조직은 1927년 당 대표(1929년에는 정치위원)를 파견하였고, 1947년에는 군당위원회 체도가 도입되었다.

39) 박형태, “김정일 정권에서 군부의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5~6면.

40) Suck-Ho Lee, Party-Military Relations in North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Seoul : Research Center of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9), p.40.

다. 이는 당 우위의 원칙이 뿌리를 내렸고 군대내 당 조직에 의한 통제 체제, 군사문제 이외의 정치문제에는 간여하지 않는 직업주의적 성향이 자리 잡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960년대 말에는 군의 정치적 개입이 본격화되어 1969년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25명 중 12명이, 당 중앙위원회 위원의 65%가 군인이 차지하였다.

모택동 사후 화국봉 승계과정에서 4인방 체포 등 정치적 영향력이 행사되었으나, 등소평이 부상하면서 군의 정치적 역할은 위축되는 상황을 맞이했다.

“등소평은 해방군이 지방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중앙기관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영향력도 줄였다. 동시에 군부지도자에 대한 인적 교체를 단행하고 당에 의한 제도적 통제를 강화하였다. 이 과정에서 군의 효과적인 저항은 없었으며 군지도부와 타협을 시도했던 것이다.” 42)

중국은 헌법상 1954년 국무원에 신설된 국방부가 군에 관한 모든 업무를 총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군의 실권은 어디까지나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그것은 군의 실권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직속으로 총참모부, 총정치국, 총후군부 및 육·해·공군이 편성되어 직접 지휘·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당 군사위원회의 주요 권한과 책임으로서는 육·해·공군 및 모든 무장력의 통솔과 군작전의 지휘·전략과 작전계획의 수립, 국방산업의 기획 그리고 정치공작 내용과 방침의 확정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41) 1959년 8월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국방부장 팽덕회가 모택동의 대약진 운동 노선과 인민공사를 비판하다 숙청된 사건을 말함.

42) Ellis Joffe, Party and army :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pp.180~182.

“당이 군대를 지휘하는 방법으로는 각 군, 즉 육군·해군·공군 총사령관으로부터 각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위원회가 조직되어 당위원회에 의해 지도되고 통제된다.⁴³⁾

중국은 1982년 헌법을 개정하여 인민해방군을 당중앙위원회로부터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감독 하에 두었다. 그러나 이것은 형식상 기존 당의 군대에서 인민의 군대로 전환시킨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1988년 10월 1일에는 1965년에 폐지하였던 군 계급제도를 부활시켰지만 중국의 당·군 관계는 당과 군의 종속관계로 군에 대한 당 우위성이 확고히 보장되어 있다.

국방업무와 관련하여 당 기구(중앙군사위원회)와 국가기구(국가중앙군사위원회)가 병존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주석과 위원(9명) 모두가 겸직하고 있으며, 결국 군 지휘권은 당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군은 부정적인 사회적 혼란을 억제하는 중요한 담보세력으로 존재하여 왔다. 그 과정에서 군의 영향력 확대로 체제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들이 많이 작용하였지만 군이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들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의 군은 역할은 정치 상황에 따라 그 진폭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군이 당의 우월한 권위에 도전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변화가 없었으며, 군의 정치개입도 당 중앙의 명령과 통제 하에 이루어 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주경문, 『모택동의 군대』(서울 : 동아출판사, 1995), 18면.

제2절 북한의 당 · 군 관계 특징

1. 전통적 당 · 군 관계

북한은 당을 “일정한 계급의 리익을 수호하며 그의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계급의 선봉대”⁴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회주의 헌법 제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하며, 당 규약전문에도 “조선로동당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실시하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로선으로서 천리마운동과 사상 · 기술 · 문화혁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조선로동당은 조선민족과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되며”⁴⁵⁾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⁴⁶⁾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왔다.

김일성은 북한군이 “일제의 가혹한 탄압 밑에서 조국과 인민의 해방을 위하여 항일무장투쟁에 모든 것을 바쳐온 조선의 진정한 애국자들을 골간으로 하여 창건”⁴⁷⁾되었으며, “우리 인민군대는 항일무장투쟁의 직접계승자로서 로동당이 령도하는 혁명무력으로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며 자기의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것을 기본사명으로 하고 있다”⁴⁸⁾고 밝혔다.

특히 “혁명군대는 사상성과 조직성, 혁명적 신념과 의지, 투쟁기풍과 방식에 있어서 사회의 어느 집단보다도 강한 집단이며 목숨을 걸고 사회

44)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00~101면.

45)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41면.

46) 위의 책, 1151면.

47)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189~190면.

48)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361~362면.

주의 전 초소에 있는 무장집단이다. 사회의 어느 계급, 계층에도 비할 바 없는 이러한 특성과 우월성으로 하여 혁명군대는 무장으로 혁명의 길을 개척하고 가일층 전진시키는데 주력군으로, 추동력으로 된다.”⁴⁹⁾고 주장하는 한편 군을 가리켜 “공산주의 학교”⁵⁰⁾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구나 남한을 해방하는 혁명투쟁에서 당과 수령을 위해 조국과 인민을 위해 목숨도 청춘도 서슴없이 바쳐 싸울 것을 강요하면서, 수령에 대한 절대적 충성, 절대적 복종, 자발적인 희생정신과 혁명적 동지애, 혁명적 계급투쟁의식을 고취하여 왔다.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들은 북한군이 국가의 군대이기 보다 당의 군대, 당의 군대이기 이전에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군사집단으로서 그 출발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군의 창건과 영도, 군의 발전 모두를 김일성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현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승계하여 김정일 사병의 군대라는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러나 북한군은 1948년 2월 8일 창설 당시만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보장받을 수가 없었다.

그것은 해방 후 북한지역의 사회질서 및 치안업무를 자발적인 민병조직(자위대와 치안대 등)에 의해 수행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 후 1945년 10월 12일에는 소련군 제25군사령관 치스차코프대장이 북한지역의 모든 무장 세력을 해산시키고 동년 10월 21일 새로운 무장세력으로 2,000명 규모의 보안대⁵¹⁾를 조직하였다.

49) 최순옥, “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 2001년 3호(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15면.

50)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265~302면.

51) 북한은 1946년 2월 진남포 도학리에 평양학원을 설립하여 보안대 간부요원을 양성

“보안대를 모체로 하여 북한군은 4개의 사단을 편성하였는데 이들 부대의 구성은 중국군 내에 있던 한인부대 약 33,000여명과 구 소련군 한인부대 출신 약 5,000여명이 입국하면서 군의 주요 직책을 맡게 되었다.⁵²⁾

북한군은 창설 초기에 문화부를 설치(사단→문화부사단장, 연대→문화부연대장, 대대→문화부대대장)하여 당이 군에 대한 정치사상적 통제를 담당하여 왔다.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인민군내에서의 당 조직과 정치기구제도에 관한 결정”을 통해 당이 군을 통제하는 제도를 확립했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혁명무장력으로서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할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오직 조선 로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내에는 당 조직 외에 그 어떤 다른 당 조직도 있을 수 없다”⁵³⁾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한국전쟁시기 북한군의 지휘부는 최용건(최고사령관 겸 민족보위상), 김책(전선사령관), 강건(전선사령부 총참모장), 최현(사단장), 오진우(사단장), 최광(사단장)을 중심으로 한 항일빨치산계열과 무정(2군

하였고, 1946년 6월에는 평남 강서군 대안리에 보안간부학교를 설립하였다. 최초 4개월은 교관교육훈련, 이후 900여명의 지방보안대원 및 인민위원회 핵심분자들을 선발하여 본격적인 간부요원을 양성하였다.

1946년 8월에는 평양에 보안간부훈련대대를 창설하였고 예하에 대대본부 및 경비대, 3개의 대대와 4개의 훈련분소를 두었다. 제1대대는 예하 중대를 해주, 사리원, 강계, 신성천에, 제2대대는 성진, 길주, 단천, 삼삼봉에, 제3대대는 함흥, 신포, 양덕, 원산에 배치되었으며, 제1분소는 개천, 제2분소 나남, 제3분소 원산, 제4분소는 평양(철도경비대)에 두었다.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지도전서』(하),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1450~1451면.

52) 장명순, 『북한군사연구』(서울 : 팔복원, 1999), 170면.

53)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145면.

단장), 김응(1군단장), 이상조(인민군 부총참모장), 왕연(공군사령관)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 팔로군계열, 그리고 최표덕(전차사령관), 유성철(전선사령부 작전국장), 이봉울(포병국장), 박길남(공병국장), 남일(총참모장), 최흥국(후방총국장) 등을 중심으로 한 소련군계열 등 이질적이고 다양한 인물들로 구성”⁵⁴⁾되어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보장할 수 없었다.

1961년 수정된 당 규약에 따라 총정치국이 설치되었고, 총정치국 산하 군단→사단→연대→대대→중대 단위에 이르기까지 정치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의 서명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부서(副書) 제도를 채택하는 등 정치위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켰다.”⁵⁵⁾

또한 “인민군대는 주체사상에 의하여 지도되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당의 군대입니다. 인민군대를 강화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다하도록 하려면 모든 군인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키우고 군사사업과 군사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하여 전군을 주체사상화하여야 합니다. 전군을 주체사상화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무력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며 오늘 인민군대 앞에 나선 총적과업”⁵⁶⁾이라고 밝히고 당을 통해 군을 통제한다는 원칙을 천명하였다.

김일성시대 사회주의 헌법 제9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반적 무력의 최고 사령관, 국방위원회 위

54)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울 : 서문당, 1991), 19~26면.

55)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1482면.

56)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9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71면.

원장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 통솔한다” 57)고 규정하였으며, 제6차 당 대회에서 개정한 당 규약에도 조선인민군은 항일무장투쟁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계승한 조선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46조)이며, 조선인민군대내의 각급 단위에 당 조직을 구성하며 조선인민군의 전체 당 조직을 망라하는 조선인민군 당위원회를 조직한다(47조)고 규정하였다.

당 규약 48조에는 당 조직 기능⁵⁸⁾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전군을 주체사상으로 교양하기 위해 투쟁한다. 당원들과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공고히 확립하며 그들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서슴없이 생명을 바칠 수 있는 진정한 혁명전사가 될 수 있도록 단련한다. 간부대열을 강화하며 간부 후비대를 육성하고 그들의 당성을 끊임없이 단련하도록 당원의 당 생활을 조직, 지도하며 당 대열을 확대, 강화한다.

당원과 군인들에 대해 주체사상, 당 정책 및 혁명전통교양과 계급교양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산주의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교양을 강화하며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통해 그들을 당 두리에 결속시킨다.

조선인민군대내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조직들을 강화하고 그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당 군사노선과 주체적 전략전술을 수행하기 위해 군사사업에 관한 당위원회의 집단적 지도를 강화하며 인민군을 일당백의 혁명적인 무장력으로 강화, 발전시키기 위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과 붉은기중대운동을 적극 전개한다.

당원과 전사들이 언제나 지체 없이 행동할 수 있도록 경계태세를 견지토록 하고 항상 완벽한 전투태세를 갖도록 고무한다. 당원과 전사들에게

57)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1755면.

58)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51면.

높은 혁명적 동지애 및 군관과 전사, 군대와 인민간의 고귀한 전통적 단결정신을 발휘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북한군내 당 및 정치기관은 군사지휘체통의 지시를 받지 않고 당중앙위원회 직속으로서 별개의 지휘체통을 유지하고 김정일 유일지배 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해 당이 군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감시를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2. 수령 중심적 당 · 군 관계

사회주의 국가에서 당은 국가의 영도적 정치기구로서 독점적 지위와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반면에 군은 당의 혁명적 무장력으로 규정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당·군 관계는 사회주의 체제의 수립과 발전과정에서 각국의 다양한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을지라도 당이 군을 철저히 통제하여 왔으며 군은 당의 충실한 보위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북한에서의 당·군 관계는 군에 대한 당의 일방적인 통제와 복종보다는 정치사상사업을 중심으로 한 자발적 충성과 헌신을 이끌어내려는 제도적으로 억압적 형태가 아닌 당·군의 융합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⁵⁹⁾

59)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 역할 : 지속과 변화』(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20~27면.

그것은 “수령중심의 당·국가체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그 위에 수령의 절대권력 행사를 본질로 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⁶⁰⁾

중요한 것은 수령제와 당의 관계이다. 북한체제에서 당이 국가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은 사회주의 헌법 제1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선로동당의 령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헌법을 통해 북한은 당이 권력의 산실임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으며, 여타 다른 국가기관보다 당을 우위에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령의 유일적 영도 하에 통치되는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영도체제는 주체사상에서의 수령론이나 사회적 생명체론이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때문에 당은 계급정당이면서 동시에 수령의 당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것은 노동당이 계급적 정당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령의 혁명사상을 지도적 지침으로 하고 있고, 수령의 유일적 영도 밑에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령의 당인 것이다.

북한의 정치사전은 “당이 로동계급의 계급적조직의 최고 형태라면 수령은 당의 최고령도자이며 프롤레타리아독재체계의 총체를 령도하는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의 중심이다. 수령이 없이는 당이 있을 수 없으며 수령의 영도가 없이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이 승리할 수 없다”⁶¹⁾고 밝히고 있다.

60) 정우곤,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와 특성”, 『통일문제연구』 1997년 상반기호(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7), 209~213면.

61) 사회과학출판사,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324면.

이와 같이 수령 중심의 당·국가체제인 북한에서 당에 부여된 지위와 역할은 기존 사회주의 국가들보다 강력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수령과 대중사이 당이라는 제도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여 북한의 지도체제는 당·국가체제를 토대로 그 위에 수령이라는 제도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군의 정치적 역할은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지도체제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당사상사업부문앞에 나선 중심과업은 전당에 유일사상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계속 실속 있게 끌고나가는 것입니다. 당 조직들은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며 부르조아사상과 수정주의,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한 온갖 불건전한 사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우리 당의 유일사상, 당의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켜야 한다”⁶²⁾고 강조하여 왔다.

더구나 수령은 혁명위업을 수행해 나가는데서 당을 창건하고 혁명사상과 혁명이론을 창시하여 인민대중을 혁명사상으로 무장시키고 이들을 조직화하여 혁명승리의 조건을 마련하며, 혁명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노동계급과 당을 영도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 나가는 등 혁명위업을 수행하는 데서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규정하고 있다.

62)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5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521면.

북한은 1974년 4월 김정일이 제시한 당의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에 따라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 확립을 본격화하였다.

김정일이 밝힌 당의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김일성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 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둘째, 김일성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하여야 한다.

넷째, 김일성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수령의 교시를 신조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김일성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하는 전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혁명적 단결을 강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품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 작풍을 소유하여야 한다.

여덟째, 김일성이 안겨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며 수령의 크나큰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한다.

아홉째,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 밑에 전당·전국·전군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열째,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 나가야 한다.

김정일은 1996년 12월 김일성종합대학 창립 50돌을 즈음하여 행한 연설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해 나가자면 당을 강화하고 당이 총대를 틀어쥐어야 한다”⁶³⁾고 강조하면서 군에 대한 당의 조직사상적 통제를 강화시켜 나갈 것을 제시하였다. 1998년 1월 1일 신년공동사설에서도 “김정일시대에 들어서 인민군대는 조국보위에서나 사회주의건설에서나 혁명의 기둥, 주력군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 군이 혁명을 영도해 나가는 ‘선군혁명영도’로서의 군대로 발전하였으며 이와 같은 선군혁명영도가 김정일의 독특한 영도방식”⁶⁴⁾이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수령의 역할은 첫째, 수령은 근로인민대중이 자기의 근본이익을 자각하도록 혁명사상을 넣어주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으로 인민대중을 영도하며, 둘째 수령은 정확한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혁명이론과 과학적 전략전술을 내놓으며 근로인민대중을 하나의 정치적 역량으로 묶어 세워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한다는 것이다. 셋째 수령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은 이 같은 수령의 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혁명과 건설을 수행하여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는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고 노동계급의 혁명을 종국적으로 완성할 수 있다”⁶⁵⁾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수령의 역할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북한 군부의 위상이 김일성시대에 비해 강화되었다는 사실은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하는 데서도 입증된 사실이다. 그것은 통상적으로 당 총비서의 선출권은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갖고 있는데 당중앙위원회와 당중앙군사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대형식을 취하였다는 점이다.

63) 「월간조선」(서울: 월간조선, 1997), 311면.

64) 「로동신문」, 1999. 1. 1.

65) 이상걸, 『주체의 당 건설이론의 전면적 발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4), 44~45면.

따라서 현재 군부의 위상 강화는 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시스템에서 국방위원회라는 군사성격의 정책결정기구를 대내외에 내세워 북한이 직면한 위기극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3장 북한군의 정치조직 기능과 군부의 위상

제1절 북한군의 정치조직과 기능

북한군은 군내의 각급 계대에 인민군 당위원회와 정치기관을 조직하여 당이 군 업무 전반을 장악하고 군을 통제하면서 정치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군의 정치 사업은 “인민군 창설초기만 하여도 문화부가 담당하여 수행 하였고, 1950년 말 정치부로 개편하여 이를 한층 강화시켰다.”⁶⁶⁾

“1956년 8월 종파사건과 1969년 김창봉, 허봉학 등 군벌숙청을 거치면서 군대내의 초급당 조직만 두었던 것을 전군에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⁶⁷⁾ 1961년 수정된 당 규약에 따라 인민무력부에 총정치국이 설치되었다.

북한군은 인민무력부⁶⁸⁾ 산하 군사·정치·보위계통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⁶⁹⁾

군의 정치기구로는 인민군 당위원회와 정치기관으로 총정치국을 두고 있다. 총정치국 산하 각 군단, 사단, 연대, 대대, 중대에 이르는 정치조

66)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지도전서』 하(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1456면.

67) 정영태,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역할 : 지속과 변화』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28~38면.

68) 1948년 9월 9일 북한정권 수립과정에서 인민군총사령부를 민족보위성으로 개편, 발족하였고 1972년 12월 헌법 개정에 따라 현재의 인민무력부로 개칭되었다.

69)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167면,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1477~1483면.

직체계를 갖추고 당 사업에 대한 군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을 당에 융합시키는 당·군일원화체제로 발전시켜 왔다.

1. 정치계통

가. 인민군 당위원회

북한은 군에 대한 당적 통제를 위해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군대 내에 당 조직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김일성은 “인민군대는 우리 당에 의하여 창건된 혁명무장력으로써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담보할 사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인민군대는 오직 노동당에 의해서만 영도되어야 하며 인민군대 내에는 당 조직 외에 그 어떤 다른 사상이나 당 조직도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인민군대안의 각급 당 위원회도 다른 모든 부문과 마찬가지로 부대 내에서 최고 지도기관”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대 내에서는 정치, 군사문제를 비롯한 모든 문제를 대대초급당 위원회에서 토의하고 대대 초급당 위원회의 분공에 따라 군사사업에 대해서는 대대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며 정치 사업에 대해서는 정치부 대대장이 책임지고 집행하는 규율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⁷⁰⁾”고 지시하면서, 대대장이 당의 노선과 위반되는 명령을 내릴 때에는 정치부 대대장이 제지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당에 의한 군의 통제와 정치사상교양사업은 순조롭게만 진행되지 못하였고 결국은 군 지휘관과 정치 군관들 사이에 갈등과 파벌이 빚

70)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6(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145면.

어지는 등 당의 유일사상체제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었다.

김일성은 1958년 3월 8일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인민군 대내에서 당 생활이 건전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맑스-레닌주의 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사업을 힘있게 진행하지 못하고, 당 정책에 대해 총정치국내 일부 일군들이 사상적 동요를 일으켰기 때문”⁷¹⁾이라고 강조하면서 군대내의 당 조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당위원회제도를 신설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인민군 당위원회가 정식 발족하였고, 1961년 10월 제4차 당 대회에서 채택된 당 규약 제7장 47조에 의해 인민군 당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부분적인 보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직속으로 인민군 당위원회 위원장이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인민군 당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각급 정치기관들의 사업을 지도하는 임무이다.

따라서 인민군 당위원회는 지도기관⁷²⁾으로서 당의 군사노선과 정책관철을 위한 집체적 집행대책을 토의 결정하면 총정치국은 인민군 당위원회의 집행부서로서 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의무만 가진다.

둘째는 당의 목적에 맞는 인사관리임무와 모든 군사작전 및 훈련계획, 간부들의 당 생활에 대한 지도와 통제 임무이다.

김일성은 “지난날 군단 정치부장들은 집단군 정치부의 통제를 받았는데 집단군에 한달에 한 두번 올라가나마나 하였기 때문에 집단군에서는

71)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1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162-167면.

72) 군단 · 사단 · 연대 당위원회도 같은 방식의 사업을 지도한다.

그들이 사업과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고 지적하면서 군단 당위원회에서 정치부장이나 군단장에 대한 당적 통제를 강화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인민군 당위원회의 조직체계는 인민무력부(인민군 당위원회)→군단(당위원회)→사단(당위원회)→연대(당위원회)→대대(초급당위원회)→중대(당세포위원회)→소대(당 소조)에 이르기까지 제대별로 조직되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정권초기 권력 공고화 과정에서 군을 정권에 위협적 요소로 파악하고 군대 내에 정치조직이라는 특수한 기구를 두어 획일적 통제만을 강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통제는 정치조직 자체의 돌출행위의 위험성과 군 지휘계통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 인민군 당위원회인 것이다.

인민군 당위원회는 정치군관 뿐만 아니라 군 지휘관을 포함한 인민군 전체 조직을 당의 충실한 일군이 되도록 상호비판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을 꾀하고 있으며 군대의 당적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통제와 협력 기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국 북한군은 인민군 당위원회를 통해 기존 군사지휘계통을 지휘계통과 당위원회로 2원화시키고 총정치국장에게는 인민군 당위원회의 결정을 집행하는 의무를 부여시킴으로써 군 지휘관들의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고 군벌주의를 예방하면서 당을 통한 군의 예속화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나. 정치기관

김일성은 1950년 10월 21일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전쟁의 종국적 승리를 이룩하기 위해서 인민군대 내에 당 조직을 건설하고 그 역할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민족보위성 산하 문화훈련국을 총정치국으로, 각급부대 문화부를 정치부로 개편하고 부대와 구분대(대대급 이하 부대)들에 정치부 부대장·구분대장 직제를 신설하였다. 중대에는 당 세포·대대에는 대대당위원회·연대에는 연대당위원회를, 그리고 사단·군단·총정치국에는 당 조직문제를 심의 결정하기 위한 비상설위원회가 조직되었다.”⁷³⁾

북한은 당 규약 51조에 “당중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정치, 경제 및 군사 분야의 중요한 부문에 정치기관들을 조직한다...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그 소속정치기관은 해당 당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당정치사업을 조직하고 수행” 하며, 제52조에는 “조선인민군 총정치국과 중앙기관내에 조직된 정치국(정치부)은 당중앙위원회 직속이며 그 지도하에 사업을 수행하고 담당사업에 관해 당중앙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은 1969년 1월 인민군당 제4기 4차 전원회의에서 “아직까지 군대안의 정치일꾼들이 당 정치 사업에서 형식주의를 없애지 못한 데로부터 당 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군인 대중속에 심화시키지 못하였으며 당원들의 당 생활도 당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진행되지 못하였다”⁷⁴⁾고 강하게 비판하고 인민군 당위원회를 강화

73) 김일성, “인민군대내에서 조선로동당 단체를 조직할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에서 한 결론(1950.10.21)”, 『김일성저작집』 6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148면.

74) 김일성, 『김일성저작집』 2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260면.

하기 위한 조치로 모든 명령서에 정치위원이 서명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부서(副書)제도를 채택하여 정치위원의 역할을 한층 강화시켰다.

또한 제6차 당 대회 보고에서도 “인민군대는 우리 당의 혁명적 무장력입니다. 우리는 인민군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그에 대한 당의 영도를 확고히 보장함으로써 인민군대가 당을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당의 혁명위업을 무력으로 튼튼히 담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 안의 당 조직들은 군사 사업에 대한 당적 지도를 강화함으로써 당의 군사노선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합니다. 인민군대는 전투 정치 훈련을 강화하여 군인들의 전투 도덕적 품성과 군사 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부대의 전투력과 전투 준비를 더욱 강화⁷⁵⁾시켜 나갈 것을 주장했다.

김정일도 1994년 4월 9일 당시 3군단장 장성우에게 “군령을 세우는데서 경계할 것은 군령을 세운다고 하여 군사지휘관들이 당 조직과 군내정치기관을 무시하고 전횡을 부리거나 독단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치위원은 부대 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틀어쥐고 나가야 하며 부대 안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⁷⁶⁾”고 강조하였다.

북한군대의 정치기관은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총정치국장)→군단정치부(정치위원)→사단정치부(정치위원)→연대정치부(정치위원)→대대정치부(정치지도원)→중대 정치지도원으로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정치군관들을 중앙당에서 직접 파견하여 당 정책 실현을 위한 정치사업, 김부자 유일사상체계 확립, 제반 군사업무의 감시, 감독, 정치 및 당 사

75) 임승남,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문헌집』(서울 : 돌베개, 1988), 418면.

76) 김정일, 『김정일선집』 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63~464면.

업 조정 감독, 명령 및 계획에 대한 비준, 군부대의 파벌형성 반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당의 보조단체로 김청동⁷⁷⁾을 군내에 조직하고 군내 비당원들을 당의 지도 밑에 결속시키면서 모든 군인의 일상생활을 열성당원의 행동으로 통일시 하여 왔다.

따라서 인민무력부 총정치국 산하에 김청동중앙위원회를, 군단, 사단, 연대, 대대단위에 사로청위원회를 중대단위에는 초급단체위원회를, 소대, 분대 단위에는 분조를 두고 공산주의건설 촉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무장, 당의 노선과 정책을 무조건 옹호 관철, 군인생활을 열성적으로 실행할 것 등 독특한 군 통제 지휘체제를 갖추었다.

특히 당 정치 사업을 군사 업무보다 선행시킴으로써 물질보다 정신적 전투력을 중요시하고 정치위원의 비준⁷⁸⁾이 있어야 지휘관 명령의 효력을 발생케 함으로서 군을 정치적으로 당에 완전히 종속시켰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치위원은 해당 부대에 파견된 당의 대표로서 군사지휘관이 부대를 군사적으로 책임진다면 정치위원은 부대를 정치적으로, 당적으로 책임지고, 군인들 속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부대 안에서 당의 유일사상 체계와 어긋나는 자그마한 현상이 나타나도 그와 비타협적으로 투쟁”⁷⁹⁾ 할 것을 강조하였다. 다시 말하여 정치일군이나 군 지휘관은 누구를 막론하고 당 조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이들 모두는 당원으로써 당 정책 관철에 앞장서야 하며, 서

77) 1996년 1월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으로 개칭함.

78) 1969년 인민군내 정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계획, 명령서 등에 군사지휘관과 함께 서명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79) 김정일, “부대 정치위원의 임무 : 조선인민군 군부대 정치위원과 한 담화(1972.10.17) 『김정일선집』 2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463~464면.

로 상부상조해 나갈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군사지휘관이 당의 노선과 정책에 어긋나는 결론을 하거나 명령을 내릴 때에는 그것을 거부하고 저지시킬 수 있는 권한도 가지게 된다”⁸⁰⁾고 정치위원에게 막강한 기능과 임무를 부여하였다.

인민무력부 총정치국은 국장(조명록 차수) 이하 부국장(조직, 선전부 국장 : 대장)과 조직계획부, 당조직부, 선전 및 교육부, 김청동지도부, 적공부, 특별정치부, 공보부, 통계부, 감찰부, 간부부, 인민군출판사, 인민군신문사, 2.8영화촬영소, 인민군협주단, 2.8체육단, 김일성정치대학 등을 두고 있다.⁸¹⁾

2. 군사계통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김일성시대 군의 통치권을 주석이 행사하였다. 그러나 1992년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노동당이나 주석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기구로 전환시키고, 김일성 사망 이후 1998년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은 국방위원회의 역할과 임무를 한층 강화시켰다.

80) 김정일, “인민군대 당 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및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일군들과 한 담화(1969.1.19) 『김정일선집』 1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421면.

81) 조직계획부는 총정치국 사업전반에 관한 조직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집행, 지도하는 기획기능 업무를 담당한다. 당조직부는 당 조직 확대, 지도, 점검 등 일체의 조직업무를 주관하며, 김청동지도부는 김청동사업을 조직, 지도, 감독한다.

간부부는 정치군관에 관한 인사업무를, 선전 및 교육부는 정치사상교육 및 선전사업 전반을 조직 지도한다. 통계부는 정치 사업에 관한 통계자료 작성 및 보관,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인민군출판사는 조선인민군신문과 각종 단행본의 발간 배포 등 출판물 간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2.8영화촬영소는 김부자 우상화 및 군 관련 영화의 제작 배포 업무를, 인민군협주단은 위문공연 등 연예활동 업무를, 감찰부는 군내 당 사업 전반에 관한 검열업무를, 적공부는 대남심리전에 관한 업무 등을 담당수행하고 있다.

개정헌법은 국방위원회를 최고 군사지도기관, 전반적인 국방관리기관으로 규정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의 전반을 지도한다고 명시하였다.

현재 김정일은 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일체의 무력을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산하로 설치되어 있다. 군사지휘계통은 인민무력부(부장, 총참모장)→군단(군단장, 참모장)→사단(사단장, 참모장)→연대(연대장, 참모장)→대대(대대장, 참모장)→중대(중대장)의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인민무력부장은 통상적인 국가의 국방장관에 해당되며, 대체로 군사행정 업무나 군사지원 등의 군사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군의 대표성을 갖는다.

총참모장은 한국의 합참의장과 유사한 형식의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행정권은 인민무력부장의 통제를 받고 있지만 군령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핵심적 조직이다.

총참모부는 참모장 예하에 정규군단(12개), 기계화군단(4개), 전차군단(1개), 포병군단(2개), 평양방위사령부, 해군·공군사령부, 경보교도지도국, 26개의 참모조직과 군사학교 및 군사종합대학, 연구소 등이 있다.

참모조직에는 국경경비, 비밀문서보관, 연안경비, 통신, 교육, 전자전, 공병, 정비, 대외사업, 재정, 외화벌이, 군사기술, 건설, 노동력 관리, 기동, 군사훈련, 경무, 핵 및 화학방호, 작전, 경찰, 무기, 인사행정, 지리, 수송 등과 같은 기능적 부서가 포함된다.

이와 같이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는 김정일을 정점으로 하여 예하에 총참모장과 총정치국장이 실질적으로 북한 군대를 이끌어 나가는 수뇌부라 할 수 있다. 또한 군사력의 신속한 통제 및 지휘에 장점이 있는 반면 군사력 사용의 신중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⁸²⁾

3. 보위계통

보위계통은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사령관 원응희) 예하 →군단(보위부장)→사단(보위부장)→연대(보위부장)→대대(보위지도원)→중대(담당보위지도원)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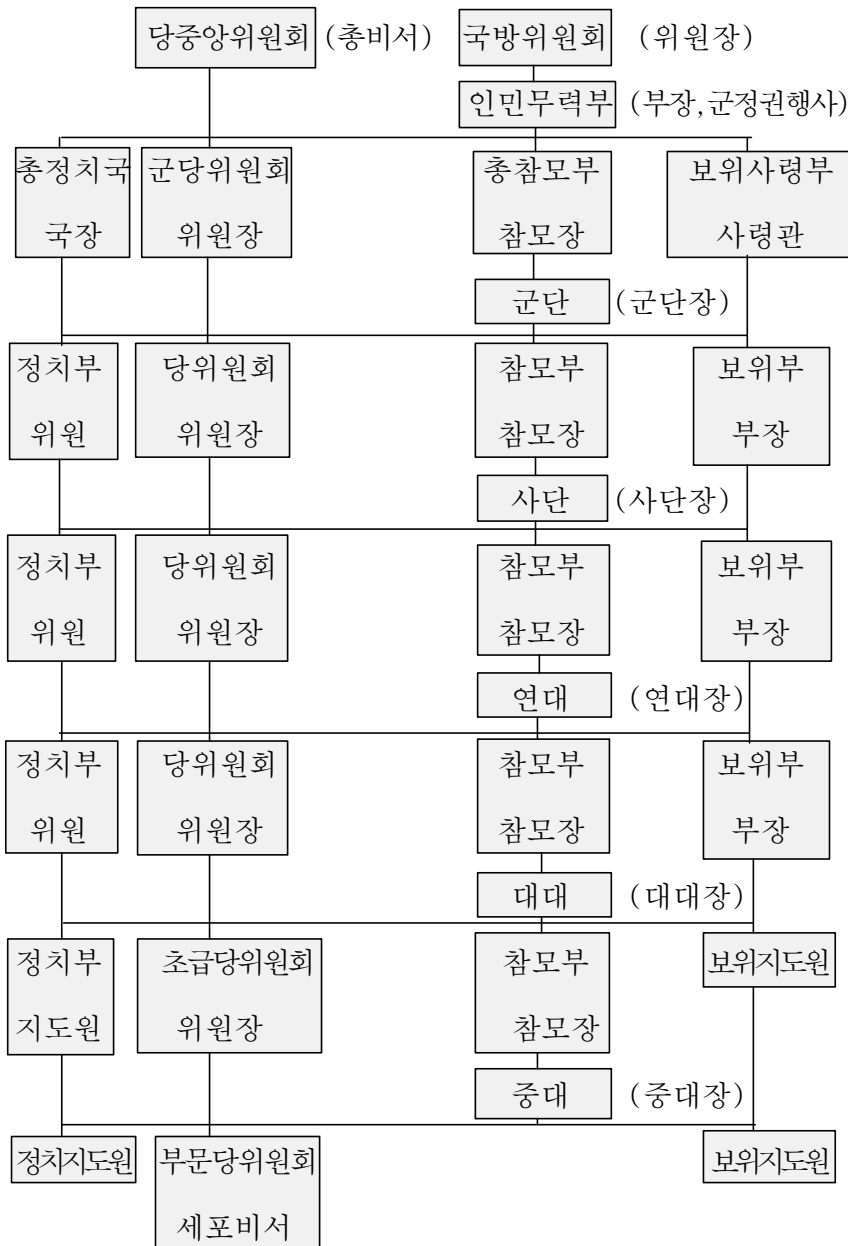
보위사령부는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등과 유사한 지위를 갖고 있으며 기능상으로는 한국의 기무사령부에 해당하는 군내 감시 임무를 수행한다.

1948년 인민군 창설과 함께 반탐조직의 안전기관으로 출발하여 한국전쟁시기에는 군내 간첩 및 반당·반혁명분자를 색출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1960년대 말 정치안전국으로 독립하였다. 1970년대 중반 보위국으로 개칭되었고, 1995년 보위사령부로 확대 개편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보위사령부의 임무는 군 내부의 간첩 및 반당·반혁명분자를 색출하는 수사, 심문, 군 관련 범죄수사, 군 지휘관들의 동향감시 및 주민등록 업무관장, 국경지역에 대한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 점검, 외국에 파견되는 인민무력부 산하 외화일꾼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82)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186~190면.

<표 3-1> 북한의 군사지휘체계도



보위사령부의 조직체계는 지휘부 및 직할부대, 지구보위사령부 체계를 갖추고 있다.⁸³⁾

최근 보위사령부는 국경검문, 열차경비를 담당하는 등 군내의 정치·지도계통은 물론 일반 공안조직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⁸⁴⁾

보위군관들은 10명당 1명 정도의 비밀정보원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 반대 및 김일성, 김정일 권위훼손, 당 정책 수행정도, 북한체제 비방 중상, 한국에 대한 찬양 선전, 국가몰자 및 군사몰자 절취, 군사규율 위반 행위, 주요 군사지휘관의 인맥 및 활동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있다.

83) 지휘부는 14개부서(1부 조직계획부, 2부 수사부, 3부 예심부, 4부 감찰부, 5부 사건종합부, 6부 미행부, 7부 기술부, 8·9·10부 특수검열부, 11부 국경검열부, 간부부, 정치부, 1개부 미상) 및 3개 직속기관(행사부, 3개 국경경비여단, 검열대)의 체계를 갖추고 있다. 지구보위사령부는 군단보위부 및 시도보위부를 두고 있다.

84)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북한이해』(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102면.

제2절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 군부의 위상

1. 군의 정치적 역할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군의 정치사업 강화, 체제보위, 경제건설 및 사회적 역할에서 더욱 확대되었다.

첫째,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군대의 정치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정일은 1994년 10월 16일 당 중앙위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에서 “현 시기 인민군대를 강화하는데서 중요한 문제는 인민군대가 당의 위협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 것” 이라고 밝혔다.

또한 군을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것은 정치 사업을 잘하는데 있다고 지시하면서 “당의 영도는 군의 생명선” 이며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특히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군대가 당의 영도를 거부하면 비정치화, 비사상화되며, 그 자리에서 자본주의 사상독소, 부르조아 생활양식이 자리 잡고 종교의식이 뿌리 내리는 등으로 비사회주의, 비프로레타리아적 병균에 오염되게 되어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고 만다”⁸⁵⁾고 주장하면서 군대의 정치화를 강력하게 추구하여 왔다.

둘째는 체제보위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담당 수행하고 있다. 과거 북한의 주민통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전담하였지만 1997년 5월부터는 군이 가세하였다.

현재 인민군 보위사령부는 다양한 방식의 사찰·감시활동을 전개하면서 1997년 7월부터는 군 요원들이 단위기관, 공장·기업소, 협동농장,

85)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50면.

대학 등에 상주하면서 반 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하여 처벌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더구나 2000년대부터는 중국내 탈북자를 검거하기 위해 탈북자 검거조를 편성하여 국경지대 검문검색을 강화시키는 한편 국경 경비초소를 증가시키고 검거된 탈북자들의 공개처형을 통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켜 나가고 있다.

셋째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전사회적으로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군이 경제건설 및 사회적 역할 증대를 꾀하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대의 창조된 정신과 기풍, 일본새가 전국의 모범으로 되어 국가건설과 경제발전을 추동하는 모델적 역할을 하고 있다”⁸⁶⁾고 주장하면서 “환경정리와 자체 부업을 비롯한 부대 세간을 잘하고 있는 북한 제770군부대의 모범을 일반화하기 위한 방식상학을 조직”하고 “도당 책임비서들이 그 부대에 다 가보도록 하라”⁸⁷⁾고 지시하였다.

현재 북한에서는 전인민적 운동으로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 군민일치, 우리학교-우리초소운동 등을 활발하게 추진시켜 나가고 있다.

1997년 4월에는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 명령하고 군의 경제건설 역할을 크게 확대시켰다.

현재 북한군은 중대단위로 부업조(7~10명)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단 단위에 농장, 군단 단위에 외화벌이 대대(사금 채취, 특용작물 재배 등), 인민무력부에는 전용 농장(황해남도 용연군, 평안남도 회창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군수산업은 제2경제위원회⁸⁸⁾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외화분야도 제2경제위원회 대외경제총국에서 전담하고 있는 것으

86)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1999), 95면.

87) 김정일,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제14권(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206면.

88) 평양시 강동군에 위치하며 북한 경제의 40%를 점유하고 있다. 제2경제위원회 산하 종합계획국, 1~8총국, 대외경제총국, 제2과학연구소, 무역상사, 민간군수 산업을 두고 있다.

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화학공장, 탄광 등 민수용 사업에 대한 관할권을 군이 확보하고 이를 직영하고 있으며, 대형공사 및 도로, 항만 건설에 군 병력이 대대적으로 투입(주로 후방 군단 병력 및 인민경비대, 도로총국, 공병총국이 주도)되어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 주요 경제활동 참여 현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3-2> 군의 경제활동 참여 현황

구분	내용
농수산	영농지원(모내기, 김매기, 추수), 연간 60~70일
	광명성제염소, 정제소금공장, 식품공장 건설
	양어장, 닭목장, 타조목장, 메기공장 건설 등
	토지정리사업, 물길공사 등
도로/철도	영광거리 도로포장공사, 청류다리 2단계공사, 평양-원산 도로공사, 원산-금강산 철도공사 등
건설	평양시내 아파트 건설, 4.25여관 건설, 동평양대극장 건설, 대동강맥주공장 건설 등
탄광	장안탄광, 덕천탄광, 제남탄광 등
발전소	안변청년발전소, 북창화력발전소, 월비산발전소, 태천수력발전소 건설 등
유적지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굴, 정방산 등

※ 출처 : 방정배, “북한 선군정치하의 당·군 관계”(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139면.

2. 군부의 위상

북한 군부의 위상은 1995년 상반기까지만 하여도 군 원로인사들의 진급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당 창건 50주년 기념일을 계기로 주요 군 인사들이 당 비서들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김일성의 생존시 군부 인사의 주석단 서열이 약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당 창건 기념일 행사에는 30%(11명)를 차지하였다.

더구나 김일성 사망 제2주기 행사에서 군의 주요 인사들은 북한 권력의 핵심인 당 정치위원과 후보위원 사이에 해당하는 11위에서 13위(이을설, 조명록, 김영춘)로 서열이 상승되는 등 군의 위상이 높아졌다.

군부의 위상 강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공개 활동에서도 입증되었다. 1995년부터 1998년까지 김정일의 공개 활동 중 군 관련 행사는 1995년 35회 중 20회, 1996년 52회 중 35회, 1997년 59회 중 40회, 1998년 70회 중 49회 나타났다. 2000년 이후에도 김정일의 공개 활동은 2003년 92회 중 군부대 방문이 63회(68%), 2004년 92회 중 60회(65%), 2007년 87회 중 41회(%)로 나타났다.⁸⁹⁾

이러한 군 중심의 공개 활동은 김정일이 권력 교체과정에서 군 우대정책을 천명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을 통한 사회적 통제 및 군의 역할 증대를 꾀함과 동시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위상을 반영한 것이다.

김정일은 1997년 2월 “인민군대가 있어야 당의 위업을 보위하고 조국과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낼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군의 지위를 격상시켜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1998년 9월 헌법 개정과 국가 권력구조

89) 김정일은 군부대 방문을 통해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하고 군인들의 사기를 고조시키는 한편 인민무력부가 중심이 되어 경제난을 해결해 나갈 것을 강조하면서 공명 및 선물 증정(AK-74소총, 쌍안경) 등으로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도모하여 왔다.

의 개편으로 국방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사실상 ‘국가 최고수위’에 오르게 되었으며, 당시 국방위원회 위원 9명 중 연형묵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이 현역 장령 또는 군사 분야에 밀접한 책책을 맡게 되었다.

군부의 권력 서열은 정권창건 50돌 기념 열병식에서는 조명록과 김영춘, 김일철, 이을설이 7~10위로 부상하였고, 김일성 사망 5주기 행사에서 조명록은 김정일과 김영남에 이어 서열 3위를 차지했다.

<표 3-3> 김정일 국방위원장 추대시 국방위원회 위원 현황

성명	국방위원회 지위	군 계급	주요 직책
김정일	위원장	원수	최고사령관
조명록	제1부위원장	차수	총정치국장
김일철	부위원장	차수	인민무력부장
이용무	부위원장	차수	
김영춘	위원	차수	총참모장
연형묵	위원		자강도당 책임비서
이을설	위원	원수	호위사령관
백학림	위원	차수	인민보안상
전병호	위원		당 비서
김철만	위원		제2경제위원장

특히 1998년 7월 26일 실시된 제10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대의원 687명 중 107명의 대의원이 군부에서 선출되었으며,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118명으로 11명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부 우대 정책은 제9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 군부의 인사가 62명에 불과 했던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대폭 증가한 것이며 그 만큼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표 3-4> 북한의 주요행사에서 나타난 군부인사의 서열변화

구분	김일성 사망3주기 (97.7.8)	김정일 56회생일 (98.2.16)	김일성 사망5주기 (99.7.8)	당 창건 55돌 (00.10.10)	국방위원장 추대3주년 (01.4.9)	김일성 90회생일 (02.4.14)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이종옥	이종옥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김영남
3	박성철	박성철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4	김영주	김병식	홍성남	박성철	홍성남	홍성남
5	김병식	김영남	이을설	김영주	김영춘	김영춘
6	강성산	계응태	전병호	홍성남	김일철	김일철
7	김영남	전병호	한성룡	이을설	전병호	이을설
8	계응태	한성룡	김철만	김영춘	연형섭	백학립
9	전병호	이을설	백학립	김일철	이을설	전병호
10	이을설	조명록	김영춘	전병호	양형섭	한성룡
11	조명록	김영춘	김일철	계응태	백학립	계응태
12	김영춘	양형섭	이용무	김철만	이용무	김철만
13	한성룡	최태복	최태복	최태복	김철만	최태복
14	양형섭	김철만	양형섭	양형섭	최영립	양형섭
15	최태복	홍성남	최영립	최영립	유미영	최영립
16	김철만	최영립	김국태	김국태	승상섭	김국태
17	홍성남	홍석형	김기남	김중린	최태복	정하철
18	최영립	김국태	김중린	김용순	이일환	김중린
19	홍석형	김기남	김용순	이용무	박순희	김기남
20	김기남	김중린	김익현	김익현		김용순
21	김중린	김용순	이종산	조창덕		이용무
22	김용순	전문섭	김용연	곽범기		김익현
23	김복신	백학립	이하일	이하일		이하일
24	백학립	이하일	박기서	박기서		조창덕
25	전문섭	김일철	조창덕	이종산		곽범기
26	김국태	김익현	곽범기	김용연		김윤혁
27	김윤혁		김윤혁	김영대		전재선
28	장철		윤기복			
29	윤기복		김영대			
30	이하일		유미영			
31	김일철		오형진			
32	김익현					

전술한 바와 같이 군부 인사들의 권력 서열 상승은 여전히 당이 군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도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증대되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으며, 1997년부터 2002년까지 북한의 주요행사 주석단의 서열변화⁹⁰⁾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90) 방정배, 앞의 논문, 54면.

제4장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 및 군사증시정책

제1절 김정일의 군부장악 실태

1. 김정일의 군부장악 과정

김정일의 군부장악은 북한의 권력승계 과정을 거치면서 크게 세 단계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

첫째 단계는 기반조성단계로서 1964년부터 1980년까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김정일은 당 및 군사 분야의 실무를 경험하고 지도력을 축적하여 자신의 정치적 지지기반과 군 지휘권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① 김정일은 1964년 김일성종합대학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으로 입문하였다. 불과 15년이라는 기간에 부장(장관급), 당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 정치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총괄비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거치면서 실무 경험 및 지도력을 축적하였다.⁹¹⁾

또한 김일성의 군부대 현지지도에 동행하고(총 24회, 1960년대 16회, 1970년대 8회), 9회에 걸친 연설담화⁹²⁾ 등을 통해 군의 중요성을 인식

91) 김정일은 당 조직지도부 책임지도원(1964~1967), 당 중앙위 선전선동부 과장, 부부장(1967~1971), 당 문화예술부장(1971~1973), 당 조직 및 선전선동 담당비서, 당 정치위원회 위원(1973~1974) 및 당 대담담당비서, 당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위원(1975~1978),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비서국 총괄비서, 중앙군사위원회 위원, 최고인민회의 제7기 대의원(1978~1980)을 거치면서 군에 대한 당의 지도를 강화시키고 군내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 지도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등 당권을 장악하였다.

92) “비행사들을 정치 군사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자”(1964. 10. 18), “인민군대 당 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1969. 1. 19) 등

하게 되었으며, 군 지휘권의 토대를 마련했다.

② 김정일의 정치사상적 지지기반은 혁명1세와 김일성일가, 만경대혁명학원 및 김일성종합대학 동문, 3대혁명소조가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김정일의 후견자인 오진우를 비롯하여 오백룡, 백학림, 전문섭, 이을설, 오극렬, 김강환, 김두남, 윤치호 등을 군 주요지휘계통에 배치하면서부터 군부의 세력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1972년 10월(당 중앙위 제5기 제5차 회의) 당중 재교부 사업을 통해 당시 160만 명의 당원이었던 것을 150만 명으로 축소하고 이후 200만 명으로 당원을 증가시키는 과정에서 50만 명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을 육성하였다.

또한 3대 혁명소조를 결성(1973년 2월 13일 당 정치위원회 확대회의의 결정)하고 김정일이 1973년 9월부터 3대 혁명소조 책임자로 이 운동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당 조직 및 선전선동부의 직접 지휘 하에 인민군 총정치국을 통한 군부의 김정일화를 추진하였다.

더구나 인민군 선동원대회를 소집(1977년 11월 30일)하고 군의 정치사업 강화를 지시하고, 1979년 2월 14일에는 “인민군대안의 선전선동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대하여”, 1979년 5월 5일 “전군의 김일성주의화 방침을 철저히 관철할 데 대한 지시” 등을 계기로 자신의 지지기반을 확대시켜 왔다.

③ 군부의 인력구조 개편을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하였다.

김정일은 1976년부터 1978년까지 주요부대 사단장과 정치위원, 연대장과 연대 정치위원 이상의 군 고위 간부들에 대한 세대교체를 단행하여 지휘관의 평균 연령을 중대장 20대 중반, 대대장 30대 초반, 연대장 30

대 중반, 사단장을 40대 중반으로 낮추어 군의 인적 쇄신을 도모하였다.

김정일은 3대혁명소조⁹³⁾를 통해 당 중앙에서 하부 구조까지 장악하고 당 및 행정기관 및 공안기관에 대한 통제, 조정, 감독권을 행사하면서 막강한 권한과 함께 주요 정보를 당 중앙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기능을 행사하였다.

특히 오진우를 인민무력부장(1976.5)과 총정치국장(1980.6)에 임명하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김일성에게 보고하는 군 관련 결재서류들을 김정일을 경유하도록 조치하여 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강화시켜 왔다.

둘째 단계는 김정일이 군 지휘권을 직접 통제하기 시작한 단계로서 1980년부터 1991년까지 이에 해당된다. 이 시기 김정일은 군부대내 3일 3선 체계를 확립하고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개편 격상시키고 국방위원회 제1부부장으로 군부를 장악하였다.

1980년 10월 제6차 당 대회에서 김정일은 당 서열 4위로 부상되었으며, 1981년 10월 21일 사로청 제7차 대회에서 2위로 승격하였다.

김정일은 북한권력의 2인자(당 정치국 상무위원회 서열 2위, 당 비서국 총괄비서 서열 2위, 당 중앙군사위원 서열 2위)로 군림하면서 김정일 추종세력의 신진인사들을 권력의 핵심부에 대거 진출시켰다.⁹⁴⁾

또한 1980년부터는 ‘오중흡과 김혁의 모범학습’을 제창하면서 군부대의 선전선동사업을 강화시켜 나가면서 1982년 10월 인민군 각급교관회

93)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해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파견된 당 핵심들과 청년 인테리들로 묶어진 소조로서, 당원, 국가·경제기관 종사자, 대학생, 대학교원, 공장·기업소의 미혼 남녀로 선발되어 단위소조는 20~50여명으로 구성되었다. 사상혁명소조는 주체사상의 보급과 이행을, 기술소조는 기술적 낙후성 분석과 새기술 혁신 지도를, 문화혁명소조는 문화생활의 낙후성 개선을 주 임무로 하였다. 1983년 9월 개최된 3대 혁명소조원대회에서 소조원 총수를 4만 6천명으로, 소조원 출신은 11만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94) 제6차 당 대회에서 북한은 정치국원 37명 중 10명, 당 군사위원 16명 중 6명, 당 중앙위원 248명 중 49명을 만경대혁명학원출신으로 구성되었다.

의, 1982년 11월 인민군 포병대회, 1983년 4월 인민군 제8차 선전선동원대회, 군부대 방문 등에 군 핵심세력을 대동하고 김일성의 현지도도를 수행함으로써 군의 말단까지 김정일의 위치를 부각시켜 왔다. 1982년 4월 최고인민회의 제7기 제1차 회의에서 정무원을 개편하여 인민무력부와 사회안전부를 김정일이 총책으로 군림한 당비서국 산하로 이관시키고, 1983년부터는 군내 3일 3선 감시보고체계⁹⁵⁾를 수립하고 군에 대한 지휘 통제권을 확립하였다.⁹⁶⁾ 특히 사단장 이상의 간부들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선물을 직접 하사하는 한편 군부의 실세들과 주기적으로 사냥 및 주연 등을 개최하여 군부의 환심을 유도하였다.

1990년 5월에는 국방위원회를 중앙인민위원회와 동격으로 개편 격상시켰으며 자신이 제1부부장에 임명되면서 군부장악이 가속화되었다.

셋째 단계는 김정일이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시킨 단계로서 1991년부터 2003년까지 이에 해당한다. 이 시기 김정일은 김일성으로부터 군통수권을 이양 받아 실질적으로 법적·제도적으로 군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인민군 최고사령관과 1993년 4월 9일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되어 군 통수권을 완전히 확보하였다.

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과거 북한의 권력 제2인자로서의 직위를 갖고 있던 인민무력부장의 막강한 권한을 격하시키고 이를 분산시키는 새로운 군 지휘구조 체계를 개편하였다.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인민무력부장이 총정치국, 총참모장, 보위사령부를 장악하는 지휘구조를 갖추고 이들의 서열은 상하관계를 이루었으나

95) 대대장급 이상의 지휘관들에 대한 일일동향을 3선(참모부, 정치부, 보위부)계통으로 보고 받고, 중대장급 이상의 병력이동과 포, 탱크 등 중화기부대 이동 및 소대급 이상의 동원훈련 등은 3일 이전에 김정일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

96) 陳性柱, 『김정일』(서울 : 同和研究所, 1990), 61~63면.

현재는 인민무력부장과 총정치국장, 총참모장이 대등한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인민무력부장은 군사외교 및 후방업무, 총정치국장은 정치사상분야를, 총참모장은 육·해·공군의 무력지휘권을, 보위사령관은 군내 사찰 및 반체제활동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군부의 군력 분산을 통한 상호 견제 및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군부의 서열변화 추세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4-1> 북한 군부의 주석단 서열변화

서열	행사명	1997.4.14 (최광장의 의원)	1998.4.14 김일성 생일 중앙 보고대회	1998.9.9 (정권수립 50주년 열병식)	1999.10.16	2002.4.24 (인민군 창건 70돌 열병식)	2004.7.8 (김일성 사망 10돌 추모대회)
1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김정일
2	이을설	이을설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조명록
3	조명록	조명록	김영춘	이을설	김영춘	김영춘	김영춘
4	김영춘	김영춘	김일철	백학림	김일철	김일철	김일철
5	김광진	백학림	이을설	김영춘	이을설	이용무	이용무
6	백학림	이하일	백학림	김일철	김철만	김철만	김철만
7	김익현	김일철	김익현	이용무	정하철	정하철	정하철
8	이두익	김익현	전재선	이하일	이용무	이용무	이을설
9	최인덕	박기서	박기서	박기서	김익현	김익현	김익현
10	김용연		리종산	전재선	이하일	리종산	리종산

※ 출처 : 「동아일보」, 1999. 10. 16,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59면.

1999년 9월 8일 김일철이 인민무력부장에 취임한 이후 그의 서열은 오히려 총정치국장, 총참모장보다 낮게 호명되어 졌다.

현재 인민무력부장의 활동을 살펴보면 주로 군사 외교사절단 접견, 인민무력부장이 주관하는 경축집회, 연구토론회, 각종 공연관람 등 비군사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볼 때 인민무력부장의 권한을 김일성시대에 비하여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의 권력 분산을 통해 상호 견제 체제를 유지하고 인민무력부장→군사외교 및 후방분야를, 총정치국장→정치사상분야를, 총참모장→육·해·공군의 무력지휘권을, 보위사령관→군내 사찰 및 반체제 활동 감시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이들 기관들을 상호견제하여 충성심을 유도하고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군 지휘체제를 강화시켜 왔다.

이러한 북한의 군 지휘구조 개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을 직접 장악하겠다는 의도에서 군부의 권력을 분산시켜 상호 견제를 통한 충성심을 유도하고 인민무력부를 비롯한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안성까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휘통제 하는 군사국가체제로 만들겠다는 의도에서 추진된 것으로 판단된다.

② 김정일은 최고사령관 취임 이후 2003년까지 13차에 걸쳐 1,132명의 군 장령(장성)을 진급시켜 군부의 지지기반을 확대시켰다.

1992년 4월 21일 김정일이 공화국 원수로 추대되면서 김일성을 원수→대원수로, 오진우를 차수→원수로, 최광, 백학림, 김광진, 이을설, 이두익, 최인덕, 주도일, 김봉률 등 8명을 대장→차수로 승진시켜 군 원로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었다. 동년 4월 23일에는 건군 이후 최대 규모의 승진인사를 최고사령관 명의로 대장 16명(장성우, 리병욱 등), 상장 28명(강동윤, 김복문, 김요웅, 김용운, 김정각, 남상락, 박종국,

신일남, 안피득, 려병남, 려춘석, 리원재, 림응성, 림태영, 전진수, 조동성, 주승남, 한인술, 허극성(등), 중장 96명, 소장 523명 등 총 664명의 장령(장군) 승진⁹⁷⁾을 단행하고 김정일의 군권확보를 과시하는 등 군내 김정일 세력의 구축을 가속화했다.

1993년 7월 19일에는 6.25참전 군 원로를 중심으로 99명(중장 14명, 소장 85명)에 대한 장령 승진⁹⁸⁾인사를, 1994년 4월15일 김익현을 대장→차수로, 김명국을 상장→대장으로 승진 조치하였다.

1995년 10월 8일에는 당 창건 50주년을 맞아 당중앙군사위원회·국방위원회 공동명의로 최광·이을설을 차수→원수로, 조명록, 김영춘, 김철만을 대장→차수로 승진시키는 한편 최고사령관 명의로 김하규, 현철해, 김병률을 상장→대장으로, 전기련, 이명수, 오금철, 윤정린, 김희관을 중장→상장으로 승진하는 등 14명을 승진시키고, 최광을 인민무력부장에 임명하였다.

1997년 2월 9일에는 김격식, 주상성, 김성규, 박재경을 상장→대장으로, 박영하, 이창한 등을 소장→중장으로 승진⁹⁹⁾시켰으며, 4월 13일에는 김일철, 전재선, 박기서, 이종산을 대장→차수로 승진시키고 김일철을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에 임명하는 한편 정창렬을 상장→대장으로, 김기선, 김용운, 김윤심, 심명수, 옥봉린, 리룡환, 리태철, 지기선을 중장→상장으로, 소장 37명을 중장으로 대좌 71명을 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123명에 달하는 승진을 단행하였다.

1998년 4.14일 김일성 생일에 즈음하여 최성우를 중장→상장으로, 소장→중장 11명(정홍명 등), 대좌→소장 20명(리희송, 류명선, 안용, 최광남, 김구기, 송정술, 김석봉, 고명옥, 리영선, 김영수, 고기수, 최종전, 백종혁,

97) 「로동신문」, 1992. 4. 24.

98) 「로동신문」, 1993. 7. 20.

99) 「로동신문」, 1997. 2. 10.

한철남, 조만식, 한영선, 신용기, 김승복, 고품희, 심부일)을 승진하였고, 9월에는 정권창립을 기념하여 이용무, 김용연을 대장→차수로 진급시켰다.

〈표 4-2〉 북한 군 장성 정기 진급 현황(1992~2003)

시기	계	원수	차수	대장	상장	중장	소장	비고
1992(4.23)	9	1	8					창군 60돌
1992(4.23)	674	1	9	16	28	96	524	창군 60돌
1993(7.19)	99					14	85	전승 40돌
1994(4.15)	2		1	1				김일성 생일
1995(10.8)	19	2	3	3	5	4	2	당창건 50돌
1997(2.19)	6			4		2		김정일 생일
1997(4.13)	123		4	1	8	37	73	김일성 생일, 창군 65돌
1998(4.14)	22				1	1	20	김일성 생일
1998(9.8)	2		2					정권 창건
1999(4.13)	78					2	76	김일성 생일
2001(4.13)	19				1	3	15	김일성 생일
2002(4.13)	55		1	3	6	5	40	김일성 생일
2003(7.26)	24				6	10	8	전승 50주년 기념
총계	1132	4	28	28	55	174	843	

1999년에는 리병삼 총정치국 부국장을 중장→상장으로, 권옥필, 김선주를 소장→중장으로, 대좌 김동인 등 76명을 소장으로 승진¹⁰⁰⁾시켰다.

2000년 4월 13일에는 강덕수를 중장→상장으로, 김청식, 한두현, 이문신을 소장→중장으로, 윤용길, 최세관, 전동욱, 안우송, 우희용, 리승환, 정영철, 전태룡, 리상설, 리청학, 김이현, 리환기, 배창복, 임태복, 유우식을 대좌→소장으로 승진시켰다.

2002년 4월 13일에는 장성우를 대장→차수로, 김윤심, 김정각, 여춘석을 상장→대장으로, 백상호, 강영호, 이태일, 김양점, 박승원, 이무웅을 중장→상장으로, 이영호, 이영길, 황홍식, 박수철, 방국환을 소장→중장으로, 이영래, 정명구, 이종만, 윤승일, 박영길 등 40명을 대좌→소장으로 승진시켰으며, 2003년 7월 26일에는 변인선, 김형룡, 최형관, 리태원, 심상대, 지영춘을 중장→상장으로, 전룡구, 리창식, 김양근, 긴경식, 오철산, 정태근, 김승연, 리문광, 전기창, 강희렬을 소장→중장으로, 림영화, 조영대, 장춘산, 김철중, 김경훈, 조사형, 김봉식, 김태학을 대좌→소장으로 승진하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대대적인 군부 승진을 통해 소장급 실무 장령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을 유도하면서 강성대국 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③ 군 중시활동으로 군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능력 및 업적을 과시해 나가고 있다.

김정일은 김일성 사망 이후 1994년 후반까지는 공식적인 특별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으나 1995년부터 1999년 10월까지 총 274회에 걸친 활동을 전개하여 이중 군부대방문이 108회로 39.4%를 차지하였다.

김정일이 추구하고 있는 군사기 진작책은 장령급 및 군 엘리트 군관급, 중간간부와 하전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100) 「로동신문」, 1999. 4. 14.

1993년에는 “당 세포위원들이 세도를 너무 부린다” 는 일선 지휘관들의 불만을 보고 받고 부대지휘관에 대한 정치장교의 간섭을 줄이고 군 지휘관의 권한을 확대시켜 나가는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군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조치로는 군대내 당 기관인 총정치국 간부부와 분리시켜 조선인민군 간부부로 독립시켰으며, 간부 추천 문건을 해당 단위 정치위원이나 정치부장이 수표(서명)하던 것을 군 지휘관이 수표하고 정치간부들은 부서만 하도록 조치하였다.

1998년부터 1999년까지 김정일 공식행사에 수행횟수로 본 순위는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표 4-3> 김정일 공식행사 수행횟수로 본 순위(1998~1999)

순위	주요 인사의 수행횟수	순위	주요 인사의 수행횟수
1	현철해(80회)	9	이명수(34회)
2	박재경(73회)	10	김용순(33회)
3	조명록(51회)	11	박송봉(30회)
	김영춘(51회)	12	이용무(25회)
5	김국태(49회)	13	김일철(22회)
6	장성택(41회)	14	연형묵(11회)
	이용철(41회)	15	최춘황(9회)
8	김기남(35회)	16	전병호(7회)

※ 출처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278면.

1993년 4월 15일을 계기로 정부 부처간 어느지역, 어느 기관이나 출입할 수 있는 신임장을 부여¹⁰¹⁾하였고, 1994년 10월에는 군단장과 군단 정치위원급에게 은백색의 소형 권총을 선물하였다.

1994년 말부터 1995년 초까지 군단장 직무 차를 벤츠 230으로, 전선지구 사단장에게는 산악형 신형 차량을 교체 지급하는 한편 벤츠차에는 선팅을 허용함으로써 권위를 높여 주었다.

군관 및 중간 간부에게는 1970년대 중반 폐지되었던 장기 복무자에 대한 훈장과 메달 수여제도를 부활시켰다. 상훈수여는 2000년 2월 전투력 강화에 모범을 보인 7개 부대와 1,350여명의 군인에 대해 김일성 훈장, 국기훈장을 수여하였다.

또한 김정일은 자신의 군사적 노력을 보여주고 군 통수권 획득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적 모험주의와 유사한 강경정책을 구사하면서 자신의 군사능력을 과시해 나가고 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김정일이 “비범한 군사적 지략으로 언제나 복잡하게 얽힌 정황속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명철하게 꿰뚫어 보고 그에 맞는 묘한 수로 적들을 궁지에 모아 놓곤 한다”¹⁰²⁾고 밝혔다.

김정일은 1993년 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에 대한 핵 의혹을 해명하는 최종수단으로 특별사찰을 결정한 후 한미양국의 탐스피리트 93 훈련 결정에 대해 훈련 개시 전날인 3월 8일 최고사령관 명령 제001호로 “전국 전인민 전군에 준 전시상태를 선포” 하고 3월 12일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특별사찰에 대항하여 핵확산금지조약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선언하였다.

101) 과거 정무원 부부장급(차관) 이상급에서 인민무력부 국장, 군단장 등 군 엘리트 수백명에게 당중앙위 명으로 특권을 확대조치 하였다.

102) 「평양방송」, 1992. 4. 26.

1994년 10월 20일 국방위원장 권한으로 북미간 기본합의문 서명을 지시함으로써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 기본합의문”이 도출하였다.

1995년 5월 3일 휴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중립국 감시위원회 북측 사무실을 폐쇄조치 하는 한편 동년 10월 한국이 실시한 독수리훈련을 핑계로 북한군의 동계훈련을 보·전·포·공군 중심의 대대적인 기동훈련을 실시하고 100여기에 달하는 전투기를 전방에 추진 배치하여 전투기의 서울 공격을 6분대로 조종하였다.

1997년 9월 15일에는 강릉 안인진리에 상어급 잠수함을 침투하였고 1998년 6월 7일에는 속초 및 동해지역에 유고급 잠수정을, 11월과 12월에는 강화도 및 여수 해안에 반 잠수정을 침투시키는 등 대남 긴장조성을 지속하였다.

1999년 6월에는 서해 연평도 근해에 꽃게 잡이 어선을 보호한다는 조건을 내세워 북한 경비정을 NLL이남지역으로 침범하였으며 이후 신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바 있다.

또한 1993년부터는 군민일치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1992년과 1997년 4월 25일 군 창건 기념행사를 계기로 군사퍼레이드를 실시하는 한편 1998년 8월 30일이는 광명성 1호라는 위성체를 발사하여 김정일의 통치능력 및 영도업적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켰다.

2. 김정일의 군부인맥

김정일의 군부인맥은 혁명1세대, 혁명2세대, 혁명3세대로 나누어 전군에 뿌리 깊게 형성되어 있으며, 김정일은 수차에 걸치는 군부의 승진인사를 통해 충성심을 유도하여 왔다.

김정일 후계체제 출범 전후를 시점으로 공개 활동에 동행한 핵심측근과 군부 승진인사, 친인척관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일이 인민군최고사령관과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장 등 군부를 장악하기까지는 김일성의 적극적인 후원과 오진우, 최광, 이을설을 비롯한 혁명1세대의 적극적인 지지가 크게 작용하였다. 혁명1세대는 항일무장투쟁 과정에서 김일성의 보호와 지휘 아래 김일성에 대한 충성심이 높았으며 현재 김정일 정권 하에서도 김정일의 최대 지원세력으로 군부대 최고의 권위와 영예를 지닌 그룹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혁명1세대로는 항일유격대 출신 원로들로 이을설, 최인덕, 백학림, 김익현, 이두익, 김용현, 이종산 등 10여명으로 이을설(원수)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은 차수의 계급장을 갖고 군 원로급의 대우를 받으면서 국가권력의 40위권 안의 요직을 점유하고 있다.

혁명2세대로는 한국전쟁을 참전한 세대로서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리하일, 리용무, 박기서, 전재선, 오용방, 오극렬, 현철해, 장성우, 김하규, 원응희를 비롯한 차수 및 대장급이 이에 속한다. 이들 그룹은 혁명적 전통의 가계출신들로 대부분 만경대혁명학원과 해외유학경험을 갖고 있으며, 혁명1세대보다는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혁명3세대는 해방 후 자라난 세대들로서 북한의 정규 군관학교와 해외 유학을 경험한 군 엘리트로서 현재 북한군의 주요 야전군 사령관 및 군단장, 총참모부의 주요국장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북한군의 장령수는 약 1,300여명(원수 2명, 차수 13명, 대장 14명, 상장 40명, 중장 230명, 소장 1,0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 중 군 주요 보직과 당의 요직을 겸하고 있는 조명록, 김일철, 김영춘, 이용무, 박기서, 원응희, 현철해, 박재경, 리명수, 김하규, 김대식, 전재선, 김성규, 주상성, 정호균, 김용운, 리용환, 김윤심, 오금철, 리태철, 박명국, 김영룡, 백상호, 박승원, 여병남, 리원재, 강덕수, 정호균, 주승남, 최형관, 장봉립 등 약 30여명의 장성들이 김정일 정권의 최측근 군부인사로 파악된다.

군 수뇌부 중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러시아 공군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의 반항공사령관 및 공군사령관을 역임한 공군분야 전문가로 알려졌다. 김영춘 총참모장은 소련 푸른제 군사대학을 졸업하고 전형적인 육군작전 전문가로 평가하고 있다.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소련 해군대학을 졸업하고 대형잠수함 생산 등을 성공적으로 이끈 해군분야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철해 총정치국 조직담당 부국장과 박재경 총정치국 선전담당 부국장, 이명수 작전국장은 김정일의 정치군사적 보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김정일의 중복이거나 직계들로 대부분 당과 군의 요직을 겸직하고 있으며 군의 주요 위치에 포진되어 있다.

<표 4-4> 북한 군 주요 인사 프로필

성명	계급	현 보직 및 주요 경력
조명록	차수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총정치국장,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 사위위원

김일철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부장,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김영춘	차수	국방위원회 위원, 총참모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박기서	차수	평양 방위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전재선	차수	1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8,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리을설	원수	국방위원회 위원, 호위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당 중앙군사위원
김익현	차수	당 민방위부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오극렬	대장	당 작전부장, 당정치국위원, 군사위원회 위원
원응희	대장	보위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현철해	대장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박재경	대장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이명수	상장	총참모부 작전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김하규	대장	포병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8~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김대식	상장	총참모부 정찰국장,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리원재	상장	후방총국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김윤심	대장	해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10~11기 대의원

오금철	상장	공군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김성규	대장	5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 앙후보위원
김격식	대장	2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 앙위원
주상성	대장	인민보안성상,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정호균	대장	7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8~10기 대의원, 당 중 앙후보위원
김용운	대장	8군단장
리용환	대장	9군단장
리태철	상장	경보교도지도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김명국	대장	108기계화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김영룡	대장	국가안전보위부 제1부부장
백상호	상장	806기계화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김형룡	상장	815기계화군단장, 당 중앙후보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0~11기 대의원
박승원	상장	총참모부 부총참모장
여병남	상장	10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9기 대의원
정호균	상장	620포병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8~10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주승남	상장	12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5,7~9기 대의원, 당 중앙후보위원
최형관	상장	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남상락	상장	평양 고사포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8~10기 대

		의원, 당 중앙위원
이용무	차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당정치국 위원, 당 중앙 군사위원
장봉림	중장	정찰국 부국장, 조평통부위원장
장성우	대장	3군단장, 최고인민회의 제7~10기 대의원, 당 중앙위원
황진택	상장	인민보안성 참모장,
심원일	상장	인민보안성 총정치국장,
김치덕	상장	인민보안성 부상
강영호	상장	인민보안성 부상, 당 중앙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0기 대의원
권성린	중장	호위총국 정치부장, 당 중앙후보위원
권상호	상장	동해함대사령관, 최고인민회의 제9~10기 대의 원
김기선	상장	인민무력부 간부국장, 최고인민회의 제10~11기 대의원
김일송	중장	총참모부 보위부장
김정각	대장	인민무력성부상, 당 중앙후보위원, 최고인민회 의 제11기 대의원
김진수	중장	인민보안성 감찰국장
신일남	상장	인민보안성부상,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의원
심상대	상장	해군사령부 정치위원, 최고인민회의 제11기 대 의원
윤정린	상장	호위총국 참모장
장성길	중장	820전차군단 정치위원
전기련	상장	820전차군단장

최성수	중장	호위총국 정치위원
-----	----	-----------

※ 출처 : 「연합뉴스」, 『2001 북한자료 인명편』(서울 : 연합뉴스, 2000),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서울 도서출판 황금알, 2004), 242~243면.

이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김정일 친위세력은 약 4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군 고위관료 16,000명(중앙부처 국장 또는 동급 이상, 최고 인민회의 대의원, 군 장성급 등 약 5,000명, 주요기업체 당 비서·지배인 3,000명, 군 당책임비서·군 인민위원회 위원장, 군 인민보안서장 또는 동급 기관장 1,300명, 인민군 연대장·연대정치위원 또는 동급의 지휘관 3,500명, 공화국 영웅 및 노력영웅 등 3,000명), 호위총국 및 국가안전보위부 약 2만 명, 리 당책임비서·리 인민위원회 위원장·리 보안소장 급 약 12,000명, 당 세포비서 30만 명 등으로 파악된다.

제2절 김정일의 군사중시정책

1. 붉은기사상과 강성대국론

김일성 사망이후 북한은 대내외적 위기를 군중시 정책으로 돌파하려 하였고 새롭게 붉은기사상, 강성대국론, 선군정치를 제시하였다.

붉은기사상은 1994년 11월 1일 김정일의 「사회주의는 과학이다」를 통해 “나의 사상이 붉다는 것을 선포한 것과 같다”고 말한 것에서부터 시작¹⁰³⁾되었으며, 북한은 붉은기는 김정일의 신념이며 철학¹⁰⁴⁾이라고 강조하여 왔다.

붉은기에 대한 언급은 1996년 12회, 1997년 12회, 1998년 5회, 1999년 1회, 2000년 1회로 로동신문 사설에 등장하였다.¹⁰⁵⁾

북한은 “붉은기사상을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이상과 희망의 표대이며, 그 실현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 싸우는 굳은 신념의 상징”으로 “붉은기는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이다”고 밝히면서 “붉은기사상은 우리 인민을 위대한 자주적 인민으로 되게 하고, 우리 혁명을 자주와 창조의 길로 전진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¹⁰⁶⁾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996년에는 “혁명적 군인정신을 체득하고 투쟁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당의 붉은기 사상의 제일체현자이며,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전위투사”¹⁰⁷⁾라고 밝혔다.

103) 「로동신문」 1994. 11. 1.

104) 「로동신문」 1995. 8. 28.

105) 배성인, “김정일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1), 42면.

106) 「로동신문」 1996. 1. 9.

107) 「로동신문」 1996. 10. 18.

2001년 신년공동사설에서는 “21세기 사회주의 붉은기 진군은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자주정치, 단결의 정치, 애국애족의 정치를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이다”¹⁰⁸⁾고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붉은기사상은 혁명적 군인정신을 통해 최고지도자와 군인들 사이에 불패의 혼연일체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자력갱생을 도모하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해 한목숨을 바치는 자기희생정신 절대성, 무조건성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수령옹위 결사정신은 혁명하는 사람들이 지향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체제수호를 관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¹⁰⁹⁾

강성대국론은 1998년 1월 29일부터 1월 30일에 열린 「전국자력갱생 모범일군대회」에서 「고난의 행군」을 공식 마감하고 혁명과 건설에서 당면 목표를 주체의 강성대국¹¹⁰⁾ 건설에 있음을 천명한 것이 그 시초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강성대국은 정치사상 강국, 군사 강국, 경제 강국을 의미하며, 사상과 군대를 틀어쥐면 주체의 강성대국 건설에서 근본을 틀어쥐는 것으로 된다”¹¹¹⁾고 밝히고 있다.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정치사상적 측면에서 주체사상과 붉은기 사상을 고수하고 이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강화시켜 나가면서 군사적 측면에서는 당의 영도적 역할과 군대의 모델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선군정치에 기초하여 군이 앞장서서 강성대국 건설에 매

108) 「로동신문」, 2001. 1. 1.

109) 광승지, “붉은기 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통일경제』(1997.5), 59~61면.

110) 정치사상·군사·경제 분야에서 자주, 자립, 자위의 주체사상이 실현된 국가체제를 의미한다.

111) 「로동신문」, 1998. 8. 22.

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김일성은 군 정치일군들에게 “인민군대가 좋은 무기로 장비되었다 하더라도 군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며 누구를 위하여 한몸바쳐 싸워야 하는가를 똑똑히 모르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 고 밝히면서 승리를 위해서는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신념, 전조선에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반드시 건설하겠다는 신념, 세계 혁명적 인민들과 단결하여 미제국주의자들을 멸망시키고 세계혁명을 완수하겠다는 강한 신념” 을 가진 군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의 군은 당 및 김청동조직을 통해 당의 이데올로기와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군인들 속에 당 정책을 널리 해설·선전하여 군을 당의 두리에 결집시키는 정치사상교양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으며, 김정일 시대에 들어서 군의 위상을 상대적으로 높이고 군대의 정치참여 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가 “당이 군대를 틀어쥐지 못한 것” 에서 비롯되었다고 강조하면서 “전체 인민이 수령결사옹위정신·총폭탄정신·자폭정신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 어떤 폭풍도 격랑도 뚫고 나가는 우리의 사회주의 사상진지는 영원한 금성철벽이다. 사상적으로 일색화된 우리의 이 위력을 보고 이 힘은 원자탄보다 더 위력이 있다고 부러워하고 있다” 112)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경제 활성화 및 자립경제의 위력을 높이 발양해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분야별 수행목표를 제시하고 과학중시, 경제 사업에서 실리보장을 강조하여 왔다.

112) 「조선중앙방송」, 1999. 9. 8.

2. 선군정치

선군정치는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론과 더불어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의 종합적 완성본이라 할 수 있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1995년 1월 1일 인민군 다박술 초소 방문을 시초로 하여 1997년 12월 12일 선군정치라는 용어가 공식매체에 등장하였다.

1997년 이전까지만 하여도 북한의 공식문헌에는 김정일의 정치사상 및 방식을 ‘군사중시의 혁명사상’, ‘당과 군대·인민의 혼연일체와 군대의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는 정치’ 등으로 소개하였고, 1997년 ‘선군후로’라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그 개념을 구체화하였다.

북한의 선전매체는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¹¹³⁾라고 주장하면서 “선군정치는 김정일의 정치방식이며, 혁명위업을 총대로 완성하려는 의지이고 영원불변하며 당·국가·사회 모든 분야에서 군 중시 사상을 철저히 구현”해 나갈 것과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우리시대의 완성된 정치방식”¹¹⁴⁾이라고 선전하여 왔다.

1998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차 회의 개최를 전후하여 선군정치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2001년에는 선군정치를 “혁명군대를 핵심으로 하여 전반적인 혁명대오를 강화하는 정치이고, 혁명군대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를 보위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돌파구를 열어나가는 정치이며, 군대를 본보기로 하여 온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 나가는 정치”¹¹⁵⁾라고 정의하였다.

113) 「로동신문」, 1999. 6. 16.

114) 「조선중앙방송」, 1999. 7. 22.

115) 「로동신문」, 2001. 12. 21.

2002년부터는 당 조직들이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선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 사업을 더욱 강화시켜 나갈 것을 주장하면서 “선군사상은 우리 당의 모든 전략과 전술, 로선과 정책의 초석으로 당, 국가건설과 활동의 근본 지침으로, 모든 사회성원들의 일상적인 사고와 행동의 기준으로 되고 있다¹¹⁶⁾고 밝히고 있다. 선군정치 개념의 정립화 과정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5> 선군정치의 개념 정립화 과정

단계	군의 역할	사용 용어	비고
제1단계 (1995-1997)	체제보위	군사중시, 선군후로, 선군혁명령도, 충효일심, 수령결사옹위	개념 모색
제2단계 (1998-2001)	체제보위+경제건설현 장 투입	선군정치, 선군혁명사상	김정일 통치방식으로 자리매김
제3단계 (2002-현재)	체제보위+경제건설현 장 투입+사회·문화 전분야	선군사상, 선군혁명군대가 혁명의 주력군	혁명적 군인정신의 전사회적 확산

북한이 2000년 발간한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제하에서는 강성대국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강성대국이란 국력이 강하고 모든 것이 흥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이 사는 나라이다. 강성대국 건설론이란 김정일이 김일성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이 발현되고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발현되며 김정일의 비범한 예지와 선견지명이 구현된 것이다.

사상강국이란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되고 수령옹위 결사정신의 결정체이며 반동적 사상과 부르조아 생활양식을 철저히 배격하는 나라이다.

정치강국이란 자주적인 정치를 실시하고 전체인민의 일심단결이 가장 높

116) 「로동신문」, 2002. 10. 5.

은 수준에서 실현되며 국제정치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문제를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정치력을 가진 나라이다.

군사강국이란 주체적인 군중시의 정치가 빛나게 구현되고 정치사상적으로나 군사기술술적으로 튼튼히 준비된 참다운 혁명군대를 가지며 전국이 요새화되고 전민이 무장하고 철저히 보장된 민족경제를 가지고 경제의 모든 부문이 현대화되고 모든 생산과 경영활동이 과학화되어 있고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풍부한 물질문화생활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는 경제를 가진 나라이다” 117)라고 밝히면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사회주의권의 붕괴와 제국주의자들의 북한 사회주의의 압살 고립정책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동지의 총대중시 사상에 기초하여 선군정치를 사회주의 기본정치 방식으로 확립하여 선군혁명령도로 력사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여 사회주의 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끌었다” 118)고 주장한다.

북한은 2005년에 들어서 선군정치의 개시 시점을 “1932년 4월 25일 김일성 항일유격대 창설로 소급” 119)하였고, 김정일의 선군영도의 시작 시기도 종전의 “1995년 1월 1일 다박술 군부대 방문에서 1960년 8월 25일 105탱크사단 방문” 120)으로 30년 이상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

김정일의 선군정치는 첫째, 북한의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 설정하고 군에 의거하여 사회주의 체제를 보위하고자 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신문은 “오늘에 와서 혁명의 주력군은 마땅히 총대를 틀어쥔 혁명군대가 되어야 한다” 121)고 주장하면서 “이는 종래의 혁명의 주력군을 노동계급으로 설정한 것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김정일의 독창적인 혁명사상” 122)이라고 밝혔다.

117)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참고.

118) 「로동신문」 2002. 2. 20.

119) 「조선중앙통신」, 2005. 6. 30.

120) 「로동신문」, 2005. 8. 24.

121) 「로동신문」, 2002. 10. 5.

122) 「로동신문」, 2002. 2. 19.

<표 4-6> 신년공동사설에서 나타난 주요 통치이데올로기 언급비중(1996~2007)

연도	제목	붉은기 사상	강성대국	선군
1996	붉은기를 높이 들고 새해의 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	15		
1997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건설해 나가자	2		
1998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새해에 총진군을 다그치자			
1999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6	
2000	당 창건 55돌을 맞는 올해를 천리마 대고조의 불길 속에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7	
2001	고난의 행군에서 승리한 기세로 새 세기의 진격로를 열어나가자	5	6	8
2002	위대한 수령님 탄생 90돌을 맞는 올해를 강성대국 건설의 새로운 비약의 해로 빛내이자	4	13	9
2003	위대한 선군기치 따라 공화국의 존엄과 위력을 높이 떨치자	2	13	26
2004	당의 영도 밑에 강성대국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 공세를 벌려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이자		13	43
2005	전당·전군·전민이 일심 단결하여 선군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자	1	10	45
2006	위대한 포부와 신심에 넘쳐 더 높이 비약하자	1	12	40
2007	승리의 신심 드높이 선군조선의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가자	1	18	38

※ 출처 : 1996-2007년 신년공동사설 정리

또한 미제국주의자들의 북한 고립 압살 책동에도 굴하지 않고 미제의 침략책동을 저지 파탄시키고 민족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담보가 선군정치라는 논리이다.

둘째, 군을 활용하여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돌파구를 마련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사회생활과 정치생활을 규제하는 통치이데올로기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과거의 “고정관념을 타파하고 군사중시가 곧 경제를 추켜세우고 인민생활을 담보하는 길이라는 공식을 확립하였다¹²³⁾” 고 밝히면서 1997년 4월에는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군대가 책임지고 농사를 지을데 대하여” 명령이 하달하였고 군인들을 주요 항만, 도로건설, 발전소, 등에 대대적으로 투입하였다.

특히 주민통제를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전담하여 왔으나, 1997년 5월부터 군이 가세하여 7월부터는 단위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 대학 등에 상주하여 ‘반사회주의적 요소’를 색출하여 처벌하는 한편 개성 해주 원산 신의주 청진 강계 등 주요 접경지대에 계급교양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전국으로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 등을 내세워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다지고 해이해진 민심과 사회기강을 군인정신으로 무장시켜 사회통합력을 높여나가고 있다.

123) 「로동신문」, 2003. 5. 20.

3. 북한의 군사력 및 군사력 증강정책

북한의 군사정책기조는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표방하면서 대남 우위의 공세적 군사력을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헌법 제60조에는 “국가는 군대와 인민을 정치사상적으로 무장시키는 기초위에서 전군간부화 · 전군현대화 · 전민무장화 · 전국요새화를 기본 내용으로 하는 자위적 군사노선을 관철한다”¹²⁴⁾고 규정하고 있고, 당규약 전문에는 “조선로동당의 당면 목적은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혁명 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에 주체사상화와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는데 있다”¹²⁵⁾고 규정하고 있다.

1998년 개정 헌법에도 4대 군사노선을 국가적 수행과제로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대남정책이 변화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사정책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북한의 전략적 구상은 ① 적의 유생역량 격멸, ② 남한전지역의 동시전장화, ③ 수도권을 조기 석권하여 전쟁의 유리한 국면 조성, ④ 미군의 지원부대가 도착하기 전에 남한 지역을 점령함으로써 미군의 주력부대에 대한 사전개입을 차단한다는 전제하에 ① 총력전 전략, ② 정규군과 비정규군의 배합작전, ③ 기습전략, ④ 속전속결 전략을 당면 군사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¹²⁶⁾

북한은 한국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남적화전전략을 포기하지 않은 채 다양한 전술적 변화를 보이면서 한국내 친북세력들과 연대

124)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서울 : 북한연구소, 1999), 1133면.

125) 위의 책, 1141면.

126) 송경호, “북한사회의 안정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안논총』(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4), 93면.

하여 통일전선을 형성시켜 나가면서 통일의 결정적 시기 조성에 집착하면서 폭력혁명 또는 무력통일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적화전략은 당분간 커다란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군사지휘의 최상위기구인 ‘국방위원회’로서 전반적인 국방사업을 결정하고 지도하는 독립된 국가 권력기구이다. 인민무력부는 국방위원회 예사 군사집행기구로서 총정치국, 총참모부, 보위사령부를 통해 정규군의 군무를 총괄 집행하는 기관으로 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나 군정권만 행사한다.

따라서 북한군의 지휘체계는 총참모부가 실질적인 군사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통합군체제이다. 전시에는 최고사령관이 최고사령부와 전선사령부를 총괄 지휘하며 기계화군단, 후방군단, 경찰국, 경보교도지도국, 해군사령부, 공군사령부, 평양방어사령부, 미사일지도국, 포병사령부를 작전 통제한다.

총참모장은 전선사령관으로서 전방의 4개 군단(집단군 체제)과 일반군단, 기계화군단, 전차군단, 포병군단을 통제한다. 총병력은 117만 명의 상비전력과 770만 명의 예비전력(교도대 60만 명, 노농적위대 570만 명, 붉은청년근위대 90만 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지상군은 100만 명으로 19개의 군단(정규군단 9개, 기계화군단 4개, 전차군단 1개, 포병군단 1개, 미사일지도국, 경보교도지도국) 및 군단급 부대로 편성되었다.¹²⁷⁾ 주요 전투부대는 총 170개 수준의 사단/여단(80여개의 보병사단 및 여단, 10개의 전차여단, 20개의 기계화여단, 30개의 포병여단, 25개의 특수전여단)으로 편성되어 전차 3,700여대, 장갑

127) 19개 군단 중 4개 군단은 전방지역, 9개 군단은 평양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에, 6개 군단은 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으며, 특히 평양-원산이남 지역에 4개의 보병군단, 1개의 전차군단, 2개의 기계화군단, 1개의 포병군단이 전진배치 되어 있다.

차 2,100여대, 야포 8,500여문, 다연장/방사포 4,800여문, 지대지유도 무기 발사대 80여기를 보유하고 이중 70%의 전력이 전방지역에 배치되어 있다.

공군은 11만 명으로 공군사령부 예하 4개의 비행사단과 1개의 헬기여단, 2개의 공군저격여단 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1,670여기의 항공기(전투기 820기, 특수기 30여기, 지원기 510기, 헬기 310기)를 보유하고 이를 70여개의 항공기지(비상활주로 포함) 중 30여개의 기지에 항공기를 분산배치 하였다.

해군은 6만 명으로 사령부 예하 동해함대사령부(7개 전대)와 서해함대사령부(5개 전대), 2개의 해상저격여단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740척의 함정(전투함정 420척, 상륙함정 260척, 기뢰선 함정 30여척, 지원함정 30여척과 40척의 잠수함정)과 60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40여개의 레이더 기지와 1,000개소의 해안포대, 10여개소의 함정대피소, 잠수함 수중터널 등을 갖추고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결속유지와 대남군사력 우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전력증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최소 6~7개에서 최대 15~20기의 보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¹²⁸⁾, “탄도미사일은 약 1,300기(SCUD 미사일 1,000기, 노동1호 200~250기, 대포동 1호 40~50기)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¹²⁹⁾

128) 송경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전략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보고서』(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6), 63면.

129) 위의 보고서, 98~99면.

제5장 북한 군부의 역할변화 전망

제1절 북한군의 역할변화 실상

북한군의 역할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째는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과거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은 수령과 당의 정치적 지침과 방침을 실행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김일성 사망 이후 김정일이 국방위원회 위원장, 최고사령관의 군직책을 수행하면서부터 군의 정치적 역할이 급속도로 강화되었다.¹³⁰⁾

군의 정치적 역할의 강화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군을 중시하고 있고 국가수준에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당 서열 등 군부의 지위가 크게 향상된 데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의 국가상을 제시하고 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켜 왔다. 김정일의 군사중시사상은 북한 체제의 존속과 유지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결과 군부의 위상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참여의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정일은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하여 국방위원회를 최고 군사지도 기관,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으로 강화하였고 국방위원장이 일체의 무력을 지휘 통솔하고 국방사업 전반을 지도할 수 있는 실질적 국가 최고 지도

130) 김일성시대에 북한 군부는 독자적인 입장은 존재할 수 없었다고 판단된다. 그것은 북한군이 김부자에 철저히 예속되어 충성의 대가로 일정 지분의 정치적 위상을 보장받는 일종의 정치적 혜택과 동시에 철저한 통제의 대상이었다. 1960~1970년대 감행한 1.21사태, 푸에블로호 사건, 울진·삼척지구 사건,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 등은 군부 강경인사들의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용하였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이에 대한 군부 인사의 숙청 및 문책이 이루어졌다. 북한 군부는 최고 지도자와 당에 대하여 완전히 종속된 예속된 군부로서의 특성을 지녀 왔다.

자가 되었다.

따라서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서열 10위권으로 상승하였다. 또한 제1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대의원 687명 중 군인사가 제9기 대의원 62명에서 118명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김정일이 군부 중심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 군부의 정치적 위상은 자신들의 집단적 이익을 제고하려는 노력의 산물이다기 보다는 김부자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이루어진 일종의 ‘시혜’ 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군부 의존적 통치를 유발하게 되었고 군부의 정치적 위상이 크게 상승된 ‘정치집단형 군부’의 형태를 갖추면서 군부의 위상이 정책방향에 대한 영향력과 직접적으로 연관 짓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둘째는 북한 경제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경제는 중공업 중심의 군수산업이 핵을 이르고 있기 때문에 군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우선적 특혜를 누리고 있으며, 군이 쓰고 남은 예산과 자원을 국가에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김정일은 “경제사정이 아무리 곤란하고 부담이 클지라도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질 것”¹³¹⁾을 강조하면서 핵 및 탄도미사일,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 국가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전력을 투구하여 왔다.

더구나 인민무력부에 외화벌이를 총괄하는 전문행정기구인 44부를 직속기관으로 신설하고 외화벌이 기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한편 해군·공군사령부와 각 군단급 부대에 34부를 설치하여 외화벌이 사업을 관장

131) 「평양방송」, 1997. 7. 3.

하고 있으며, 매봉무역총회사, 용성무력회사, 단풍무역회사, 홍성무역회사 등 40여개의 무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연간 1억 달러 규모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또한 군인들을 연간 70여 일간(봄과 가을에 집중) 모내기 및 김매기, 추수에 이르기까지 농촌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는 실로 크다.

셋째는 북한사회의 통제수단으로 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군을 주민 통제기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각 공장 기업소, 농촌, 대학 등에 군을 상주시키면서 군사적 위기상황을 극대화시키고 내부적인 단합을 모색하고 있다.

1996년 6월 5일 개최된 조선소년단 창립 50주년 기념보고대회에서는 “3백만 총폭탄, 6백 만개의 수류탄이 되어 당당하게 싸움으로써 경애하는 장군님을 결사옹위하고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지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또한 군민일치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주민들로 하여금 군과 밀착하게 하고 군이 부차적인 기능으로 주민의 체제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1997년부터는 군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국적 전인민적 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고 있다.

특히 군이 철도와 주요공장의 통제를 강화시킴으로써 경제 분야에 군이 깊숙이 개입하여 주민들의 이동을 감시하고 수송체계를 조종하는 등 군의 개입이 경제, 사회, 대외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2절 군부의 역할변화 전망

김정일 체제 하의 북한군은 당에 의해 철저히 장악되어 있고 김정일은 북한군을 유일적으로 장악하고 있다. 더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인민 무력부장, 총정치국장, 총참모장, 보위사령관 등으로부터 직접 보고 또는 지시를 통해 군을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부가 단기적으로 체제동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면하계는 군부중심의 위기관리체제를 견지하면서 경제건설과 사회치안유지에 군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대외관계에서도 군사적 위협을 협상수단으로 하는 벼랑 끝 전략을 고수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김정일은 북한의 당·군 관계를 상호 경쟁·균형을 적절하게 유도하면서 당의 영도라는 대 원칙 하에 군의 위상과 영향력 강화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체제의 안정화가 이룩되어 당을 정치적 주도세력으로 복원한다면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김정일 체제의 불안정이 해소되지 않는 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북한군은 정권초기부터 혁명군대라는 속성상 정치에 깊숙이 개입하여 왔고 김정일 체제의 경제난·사회기강 해이 등 사회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군부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고 체제의 존망과 군부의 사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군의 정치개입은 필수적인 것이며, 김정일이 군의 위상을 유지 또는 제고시켜 준다면 군부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서 김정일체제를 지지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군의 역할변화 가능성에 따른 군의 정치개입 형태와 방법은 다음과 같이 예상해 볼 수 있다.

첫째, 김정일 체제의 대내외적 위기국면이 해소 될 때까지 군부는 정책결정의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의 위상과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위기국면이 해소되면 군의 정책결정의 참여도는 현저하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을 극복하지 못할시 경제문제에 대한 책임을 당과 내각에 물어 주요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 지도부와 내각의 주요 구성원을 군부 엘리트로 교체하고 당 지배체제에서 군사 우위체제로 전환하여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북한 권력의 지도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군부가 국가정책의 감독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군사정권에 의한 민간인들의 박탈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김정일 중심의 군사 우위체제는 곧 김정일 정권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군을 당의 명령이 아닌 국방위원장, 최고사령관의 명령만으로 지휘해야 하므로 당적 통제를 갖지 못한다면 당의 권한이 약화되고 김정일 정권의 존립기반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셋째, 김정일 체제가 정통성 및 체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불능상태가 지속될 경우 폭동으로 인한 체제 붕괴를 예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부가 김정일을 축출하고 당·정 관료와의 연합에 의한 집단지도 체제를 형성할 후견인 내지는 통치자로 역할을 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김정일이 허용할 수 있는 군부의 정치개입 형태는 안보정책의 보수적 조정자라고 볼 수 있으며, 군부 우대정책에 따른 ‘정치 변동의 주체’로서의 역할 가능성은 생각할 수 없으며, 오

로지 김정일의 맹목적 충성집단으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북한 군부의 전반적인 동향은 현재까지 김정일 정권의 충실한 정권유지 세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군부 우대정책에 의해 군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군이 전사회를 통제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군은 정권유지 세력으로만 기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제6장 결 론

김정일시대 북한 군부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강화는 김정일을 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한 시점을 계기로 김일성시대에 비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군의 정치적 역할과 기능이 한층 강화되었다.

① 북한군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로서 군의 정치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당·군 융합의 속성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인민무력부에는 군사지휘계통과는 별도로 인민군 당위원회와 총정치국을 두고 당 중앙위원회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군의 전반적인 정치사상사업을 담당하면서 있으며 군내 김정일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왔다.

② 국가 수준에서 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일은 군대는 곧 인민이고, 국가이고, 당이라는 선군정치를 표방하고 혁명과업 수행에서 군을 최선두에 내세우는 한편 1996년 4월 23일 군 창건일과 휴전협정체결일(전승기념일)을 국가적 명절로 제정하였다.

또한 1997년 4월 25일 군 창건행사에서 조명록 총정치국장은 당·정·군 간부들을 대동하고 김정일에 대한 충성맹세를 다짐하는 한편 군을 중심으로 당면한 대내외적 어려움 해소에 군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③ 군부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정치의 참여 폭이 확대되었다. 군부의 위상 강화는 당을 중심으로 한 기존 시스템에서 국방위원회라는 군사성

격의 정책결정기구를 대내외에 내세워 북한이 직면한 위기극면을 타개해 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특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군사중시정책은 공개 활동의 36~68%의 비중을 군사 분야가 차지할 정도로 강한 집착력을 보여 주었으며,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군부의 참여 및 영향력이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것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687명 중 군부인사가 제9기에 62명에 불과하였던 것이 제11기에는 118명으로 배가 증가되었다. 권력 서열에서도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김정일, 김영남에 이어 3위를 차지하였고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호위사령관은 내각 총리 다음의 5~7위권을 차지하는 등 서열 30위권에 10명의 군부인사가 대거 진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는 군을 혁명의 주력군, 기둥으로 설정하고 김정일 중심의 지휘통제력을 한층 강화하였다.

현재 김정일은 당 총비서, 국방위원회 위원장, 인민군최고사령관으로써 일체의 무력을 장악하고 군정권과 군령권을 행사하고 있다.

군의 지휘체계는 과거 인민무력부장과 총참모장, 총정치국장이 서로 상하관계를 이루었으나, 현재는 대등한 관계에서 조종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인민무력부장(군사외교 및 후방), 총정치국장(정치사상), 총참모장(작전 지휘권), 보위사령관(사찰 및 반체제 활동 감시) 등 군부의 역할을 분산시키는 지휘체계를 개편하고 이들 기관의 상호 견제를 통해 충성경쟁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군사력 강화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생산보장하고 인민군의 무장장비를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하기 위해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군수산업에 투입하면서 군의 사기 진작책으로 대대적인 진급 및 후방지

원체계 강화, 전투력 증진을 도모하여 왔다.

셋째,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사회적운동으로 전개하면서 군을 통한 경제건설 및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였다.

① 북한 경제에서 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예산의 최우선 순위를 군수 분야에 투입하고 있으며 아무리 경제사정이 어려울지라도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화생무기 등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여 실전배치 하였다. 현재 북한 경제의 40% 이상을 군수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를 제2경제위원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북한군은 주요 항만, 철도, 도로, 탄광, 발전소, 염전, 유적지건설 사업을 비롯하여 연간 70여 일간 농촌지원활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이 경제에 미치지 않은 영역은 거의 없다.

이러한 북한군의 민간경제활동 참여확대는 자원배분에서 군사부분의 양이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하여 다른 이익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군부엘리트들은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경제정책 사이에 좀더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며 이는 북한 군부가 일방적 군사주의를 포함함과 동시에 민간경영마인드의 보완으로 영향력을 경제 분야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사회변화에 마지못해 순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군부는 가능한 현재의 경제정책과 체제를 고수하면서 기득권과 여타 이익을 보존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적 변화를 제한적으로 수용¹³²⁾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② 사회 통제수단으로 군의 역할이 강화되었다. 북한의 주민통제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성, 법무생활지도위원회에서 전담하였지만

132) 이승주, “북한의 변화와 군부의 역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논문, 88~89면.

1997년 5월부터는 군이 가세하여 동년 7월부터는 각 공장 기업소, 농장, 대학 등에 군을 상주시켜 주민통제 및 내부적 단합을 모색하고 있으며, 철도 및 주요공장을 군이 통제하면서 경제 분야에 군이 깊숙이 개입(주민통제 강화, 수송체계 조종) 하는 한편 군의 개입이 경제, 사회, 대외 분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또한 사회안전부(현 인민보안성)에 위임하였던 군인범죄수사권을 인민무력부 보위사령부가 환원조치 하였고, 민간인 범죄도 군사재판에 회부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안전부가 발급해 오던 평양방문허가증도 1996년부터 호위사령부가 발급하고 있다.¹³³⁾

더구나 1994년 국경경비대를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으며, 1996년에는 평안남도 회창군 등 3개 군을 정무원 관할에서 인민무력부로 편입시켰다.¹³⁴⁾

③ 군민일치로 군 밀착화와 내부적 단합을 모색하면서 군의 모범적 정형을 전사회에 일반화시켜 군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김정일은 인민군의 정신과 기풍 일본새를 전국에 일반화하고 혁명적 군인정신 따라 배우기 운동을 전개하여 전사회적으로 우리공장-우리초소, 우리 농장-우리 초소, 우리 학교-우리 초소, 우리 마을-우리 초소운동을 힘있게 벌려 나갈 것을 촉구하여 왔다.

넷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핵 및 대량살상무기를 대외적 협상에 이용하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경제사정이 아무리 곤란하고 부담이 클지라도 국방력을 백방으로 다질 것”¹³⁵⁾을 강조하면서 핵 및 탄도미사

133) 「조선일보」, 1996. 5. 14.

134) 「내외통신」 주간판, 1006호, 1996. 5. 23.

135) 「평양방송」, 1997. 7. 3.

일, 화생방무기 등 비대칭 전략무기 개발에 국가자원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전력을 투구하는 한편 핵무기를 빌미로 북한체제의 안정화와 경제회생, 북미관계 정상화를 모색하여 왔다.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4위로서 117만 명과 상비전력과 770만 명의 예비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이를 실전배치하였다.

현재 북한은 1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며, 연간 300여기의 미사일(SCUD-B/C 120기, 노동1호 100기, 대포동 60기) 생산능력과 2척의 잠수함 건조, 미그-29기를 조립생산 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 하에서 군부의 역할과 위상은 단기적으로 볼 때 군의 존재가 약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히려 군부의 위상강화로 한반도의 긴장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은 군대는 조직의 특성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고 현재까지 북한 군부는 김정일에게 충성을 맹세하면서 대남 적대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강화는 오히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통일의 결정적 시기조성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국가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첫째는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위상 강화는 오히려 북한을 강경정책으로 내몰아 군사력 증강 및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가증시켜 왔다.

①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의 실전배치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②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비대칭 무기들은 남북한의 군사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국방력은 그동안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여 구축한 재래식군사전력의 전략, 전술적 가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¹³⁶⁾

③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하게 될 것이며, 북한은 비대칭 무기의 우세를 이용하여 국지전 및 전면전 개재 양상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④ 한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여 한반도 전체가 핵 표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둘째는 북한의 대남전략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복지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① 북한은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포기하지 않고 대남침투공작을 전개하여 왔다. 대표적인 침투공작으로는 1995년 10월 17일 1사단 무장간첩 침투사건, 1997년 9월 15일 강릉 잠수함 침투사건, 1998년 6월 7일 속초 및 동해지역에 유고급 잠수정침투사건, 2006년 정수평·정경학·일심희·강순정 간첩사건, 2008년 8월 원정화 간첩사건 등을 들 수 있다.

② 범민련을 애국적인 통일운동조직으로 부각시키고 통일전선 형성투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한국사회에 주체사상을 전파하고 한국국민을 의식화하여 자주, 민주, 통일에 입각한 한국사회의 변혁투쟁을 촉구하고 있다.

③ 주한미군의 감축 및 역할 감소로 인한 한국의 안보 공백이 우려되

136) 송경호,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전략에 관한 연구”, 『2006 책임연구보고서』(경기 용인: 치안정책연구소, 2006), 13면.

는 가운데 북한의 공세적 대남전략 추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셋째는 북핵문제로 인한 남북한 대치정국은 한국 경제에 악영향으로 작용하여 국가 경제의 불안요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①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일에 의존성이 높은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국내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② 국가 신용도가 하락하여 국내 투자 유치의 실패 및 국내에 투자된 해외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경제 전반에 커다란 타격을 줄 수 있다.

넷째는 북한체제의 개혁 개방을 더디게 하면서 나아가 한반도의 통일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의 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의 궁극적 목표를 포기하지 않고 남한 내의 반정부세력을 부추겨 정부와 국민 간, 국민 상호간의 불신과 대립을 유도하고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국론 분열을 야기시키고 친북 세력 강화로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전복¹³⁷⁾을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통일정책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대응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군사력 외에 신중하고 현명한 외교능력, 경제적 뒷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137) 김수남,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전략평가서』(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12 정책연구과제), 6~20면.

이를 위해서는 군사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하여 북한의 장거리 타격전 및 정보전에 대비한 첨단장비를 개발(중장거리 미사일 및 조기경보능력) 하고 한미간의 정보공유화를 강화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의 비정규전과 특수작전 부대의 위협과 핵 및 화생무기에 대비하여 비대칭 위협에 대응한 군사전략을 수립하고 군 인력 구조의 전문화를 비롯하여 유사시 북한의 무력침공을 저지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전쟁 역지능력과 자체방어능력을 보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를 강화하여 정치적인 안정과 경제발전 및 투철한 국가관으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분쇄해 나가야 한다.

현재 “한국 내의 좌파세력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비 노출 직업 혁명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세력이 1만 2천여 명,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인 수준에 있는 자들인 동조세력이 32만여 명을 차지”¹³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튼튼한 안보의 바탕위에 대북 화해협력을 통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한반도의 안보위기를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① 안보의식을 함양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10여 년 동안 정부의 햇볕정책에 편승하여 대북경각심 및 안보의식이 현저하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민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 안보교육을 비롯한 인터넷 상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

138)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 2002년 8월호(서울 : 조선일보사, 2002.8), 140~154면.

립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대남전략전술의 저의를 올바르게 간파하고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통일과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굴레에서 벗어나 거시적인 안보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북한이 인터넷을 통한 대남선전선동에 총력을 투쟁을 경주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운동권이 이와 연계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발본색원하여 법적 제재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③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한 중장기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경찰의 보안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셋째, 한반도의 냉전체제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한의 신뢰구축과 더불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남북한의 긴장상태를 완화하여 평화공존을 이룩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한국의 대북정책은 남북한의 긴장 완화와 군사적 신뢰구축, 남북한간의 화해와 협력 강화, 한미관계 및 국제사회의 노력, 한국 사회 내부의 합의 구조 창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남북한의 화해 및 협력의 토대 하에 북한의 개혁 개방을 촉진시키고 북미관계 정상화와 남북한 공존과 협력의 제도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포괄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 문헌

- 김갑식, “북한의 당·군·정 역할 분담체제에 관한 연구 : 199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 김경숙, “정치과정”, 사회주의체제비교론. 서울 : 형성출판사, 1988.
- 김인규, “북한의 당·군 관계 변천과정 분석”, 국방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용현, “북한의 선군정치와 체제군사화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 서울 : 통일부, 2001.
- 김성철, “위기 속의 정치체제 변용과 그 전망”, 통일경제 1997년 7월호.
- 김수남, “한반도 평화공존 기반구축을 위한 정책 방향”, 한반도 전략평가서,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2.
- 고유환, “북한의 권력구조 개편과 김정일 정권의 발전 전략”,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8.
- 극동문제연구소, 이념교육지도전서(하). 서울 : 극동문제연구소, 1988.
- 곽승지, “붉은기 사상과 그 이데올로기적 성격”, 통일경제 1997년 5월호.
- 박형태, “김정일 정권에서 군부의 역할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1999.
- 북한연구소, 북한대사전. 서울 : 북한연구소, 1999.
- _____, 북한총람. 서울 : 북한연구소, 1983.
- 배성인, “김정일 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 붉은기 사상과 강성대국을 중

- 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제5권 1호. 서울 : 북한연구학회, 2001.
- 방정배, “북한 선군정치하의 당·군 관계”, 영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 배진영, “한국의 좌파세력 집중연구”, 월간조선(2002년 8월호). 서울 : 조선일보사, 2002.
- 백승주, “선군정치하 북한군 역할과 위상변화”, 국방정책연구(2001년 12월호).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1.
- 서대숙, 현대 북한의 지도자 : 김일성과 김정일.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서동만, “북한 정치체제 변화에 관한 시론”, 정치비평 4호, 1998.
- 송경호, “북한사회의 안정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공안논총. 경기 용인 : 공안문제연구소, 2004.
- _____,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전략에 관한 연구”, 책임연구보고서. 경기 용인 : 치안정책연구소, 2006.
- 연합뉴스, 2001 북한자료 인명편. 서울 : 연합뉴스, 2000.
- 오일환 외, “김정일시대의 북한체제 현황”,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월간조선, 서울: 월간조선, 1997.
- 이기원, “김정일의 권력과 군부와의 관계”, 북한학보 20집. 서울 : 북한연구소, 1996.
- 이기택, “북한 군부의 특징과 권력정치”, 북한학보 22집 . 서울 : 북한연구소, 1997.
- 이교덕, “김정일의 선군정치의 배경과 그 대내외적 영향”, 정신전략학술논집 제3집. 서울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1.
- 이대근, “북한군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 김정일 시대의 당·군 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이민룡, 김정일체제의 북한군대 해부. 서울 : 도서출판 황금알, 2004.
- 이석수, “김정일 정권의 위기구조 분석”, 통일연구 제1권 제2호. 서울 : 연세대 통일연구원, 1997.
- 이수석, “북한의 선군정치에 관한 연구”, 북한조사연구 제4권 1·2호 합본. 2000.
- 이승주, “북한의 변화와 군부의 역할”,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석사논문, .
- 이종국, “김정일체제의 수령제와 당·정·군 관계”, 현대북한체제론. 서울 : 을유문화사, 2000.
- 이종석, 새로 쓴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 역사비평사, 2000.
- _____, “김정일 시대의 당과 국가기구”, 서울 : 세종연구소, 2002.
- 이태섭, “1990년대 북한의 경제위기와 군사체제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북한 및 통일관련 논문집(제1-5권), 서울 : 통일부, 2001.
- 이화여대, 북한사회의 변화와 전망. 서울 : 한국문화연구원, 1992.
- 임승남,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 문헌집. 서울 : 돌베개, 1988.
- 장명순, 북한군사연구. 서울 : 팔복원, 1999.
- 장성빈, “북한체제 내에서의 당과 군부의 관계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울 : 서문당, 1991.
- 정성장, “김정일체제의 지도이념과 권력체계 : 붉은기 사상과 당·정·군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 한국정치학회, 1999.
- 정영태, “북한 강성대국론의 군사적 의미 : 김정일의 군사정책을 중심으로”, 통일연구논총 제7권 2호.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 _____, 김정일 체제하의 군부 역할 : 지속과 변화.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5.
- 정우곤, “북한 수령제 정치체제의 제도화와 특성”, 통일문제연구(1997년 상반기호) . 서울 : 평화문제연구소, 1997.

- 주경문, 모택동의 군대. 서울 : 동아출판사, 1995.
- 최진욱, “개정헌법 이후 북한의 권력구조와 정책전망”, 통일연구논총 제 7권 2호, 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8.
- 최완규, “북한 국가 성격의 이론과 쟁점 : 비교 사회주의적 관점”, 현대 북한연구 4권 2호. 2001.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4.
_____, 2005 북한이해. 서울 :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 한국국방연구원, 2004-2005 동북아 군사력. 서울 : 한국국방연구원, 2005.

2. 북한 문헌

- 김일성, 김일성저작선집 1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7.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5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68.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9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6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김일성저작선집 1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김일성저작집 6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74.
- _____, 김일성저작집 1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1.
- _____, 김일성저작집 2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83.
- _____, 김일성저작집 35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 김정일, 김정일선집 1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김정일선집 2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1993.
- _____, 김정일선집 제14권.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김철우, 김정일 장군의 선군정치. 평양 :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리상걸, 주체의 당 건설이론의 전면적 발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84.
- 사회과학출판사,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2000.
- _____, 정치사전. 평양 : 사회과학출판사, 1973.
- 조성박, 세계를 매혹시키는 김정일정치. 평양 : 평양출판사, 1999.
- 최순옥, “선군정치는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방식”, 철학연구(2001년 3호). 평양 :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1.

3. 외국 문헌

- Amos Perlmutter,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New Haven : Yale University Press, 1977).
- Bullad Monte Ray, *Party-Army-Government Interlocking Directorate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 Structural Linkages Between Central Military*, Univ, of California, Berkeley, Ph. D. dissertation, 1977.
- Colton. Timothy. J. "Commissars, Commanders and Civilian Authority"(Cambrige : Havard University, 1979).
- David E. Albright, "A Comparative Conceptualiza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 *World Politics*, Vo1. 32. No. 4(July 1980).
- Dale R. Herspring and Ivan Volgyes, "The Military as an Agent of Political Socialization in Eastern Europe", *Armed Forces ad Society*, Vo1. 3, No. 2(winter, 1977).

- Ellis Joffe, Party and army : Professionalism and political Control
In the Chinese officer Corps 1949-1964,(Cambridge
Massachusetts : Harvard university Press, 1987).
- N. S. Khurushchev, "Khurushchev Remembers", The Last
Testament(London : Strobe & Talbot, 1971).
- Roman Kolkowicz, "The Soviet Military and the Communist
Party"(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7).
- Roman Kolkowicz, The Political Role of the Soviet Military (New
York : Prager, 1984).
- Samuel P. Huntington, The Soldier and the Sate: The Theory and
Politics of Civil-Military Relation(Cambridge, Mass :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57).
- Thane Gustafson, "Conclusion : Toward a Crisis in Civil-Military
Relation From Breznev to Gorbachev", (Princeton, New
Jersey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 William E. Odom, "The soviet Military : The Party Connection",
Problems of Communism(September -October, 1973).

4. 기타 자료

- 내외통신, 주간판, 1006호, 1996.
- 동아일보, 1999. 10. 16.
- 로동신문, 1992. 4. 24.
- _____, 1993. 7. 20.
- _____, 1994. 11. 1.

- _____, 1995. 8. 28.
_____, 1996. 1. 9, 10. 18.
_____, 1997. 2. 10.
_____, 1998. 8. 22, 9. 6.
_____, 1999. 1. 1, 4. 14, 6.16.
_____, 2001. 1. 1, 12. 21.
_____, 2002. 2. 19, 2. 20, 10. 5.
_____, 2003. 5. 20.
_____, 2005. 8. 24.
조선일보, 1996. 5. 14.
조선중앙방송, 1999. 7. 22, 9. 8.
_____, 2005. 6. 30.
평양방송, 1992. 4. 26.
_____, 1997. 7. 3.

책임연구보고서 2008-19

김정일시대 군부의 역할 변화가 한국안보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 2008년 12월 26일

발행인 : 김 길 배

발행처 : **치안정책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연동1길 29

홈페이지 : www.psi.go.kr

이 책의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자에 게재된 내용은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치안정책연구소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POLICE SCIENCE INSTITUTE